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NOV 4 1981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59 1981년11월2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November 2, 1981

한·가 무역및 투자문제 세미나
무역증진은 고용확대
이대사, 양국무역인 경제협력 당부

29일 토론토 한국무역관(관장 조성호) 주최 「한·가무역및 투자에 관한 세미나」 가 토론토 시내 세계무역관(World Trade Centre)에서 개최됐다. 이날 상오9시~5시까지 진행된 세미나에는 이규현 대사를 비롯 한국정부 대표들과 금융계·재계·학계인사들, 캐나다측에서는 몬트리얼은행 부사장 제니코브씨, 변호사 고트리브씨 등이 연사로 나왔다. 30여명의 교포무역인들과 캐나다 수입업자등 약 1백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상품의 캐나다 수출및 양국의 투자확대문제등이 토의 됐다.

◇이규현 대사

◇조성호 씨

오찬이 있기전 연사로나온 캐나다수입업협회 고문변호사 리차드·고트리브씨는 한국수출상품의 덤핑에 관한 법적장애를 설명했다.

고트리브씨는"한국상품 수출로 인한 캐나다산업의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한정부로서는 아무런 법적규제도 하지않는다"고 말했다.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선진국들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준두 뉴욕 한국무역관장은"수입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후진국이나 한국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캐나다등 자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로단순한 노동력을 부가시켜, 재수출로써 한국의 실업률 감소뿐 아니라, 자원국의수출로인한 노동력 증가도가져온다"고 반론을 폈다.

또 정관장은"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경제를 생각, 개발도상국들의 수출문제를 재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 모인 청중들의 오찬회에서 이규현대사는"지난 9월 트루도수상의 방한으로 한.가 친선무드는 무르익었다. 공교롭게도 88년도 올림픽을 서울과 캘가리에서 나누어개최하게돼 더욱더 양국의협력분위기는 조성됐다. 여기모인 양국실업인들도 좀더분발, 경제협력관계를지속 했으면 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캐나다의 환은행의 이수신 전무, 몬트리얼은행 재니코브 무역담당 부사장이 연사로나와 양국의 금융제도등을 소개했다.

이어 상무성의 맥크로스키 동아시아 담당국장과오타와 대사관의 신동오 상무관등이 연사로 나와 양국의 산업배경 설명등이있었다.

서울대생 반정부 시위
수백명학생 경찰과 충돌

〈서울26일—UPI〉 경찰은 3명의 서울대생을 지난주 교내서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3일 교내에서 여지껏 볼수 없었던 대규모의 격렬한 시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23일 정오께 서울대생 수백명이 학생식당과 도서관 주변에 운집하자 진압경찰이 투입돼 투석전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서울과 지방도시에서는 지난 수개월간 간헐적으로 학생시위가 있었으나 소규모에 그쳤었다.

韓國서 社會風紀단속법 시행
路上에 침뱉어도 罰金
放尿·汚物버리면 최고1천5백여弗

〈서울—UPI〉 사회풍기단속법이 11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상이나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은 4달러 40센트에서 6달러60센트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원이나 해변, 호수 그리고 강가에서 배설하거나 오물을 버리면 즉결재판소에 구류되거나 최고 1천4백7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사회병폐 근절운동은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 경기가 계속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발표했다.

美機 북한영공침범주장
북한방송서 도발경고

〈도쿄—UPI〉 북한은 미국 제트기가 최근 5일동안 두번이나 북한영공을 침범 「중대한 적대행위」를 했다고 30일 또 주장했다.

이방송은 이어서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그들은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룰것』이라고 위협했다.

初代회장에 김유승씨
한인학교연합회 發足

〈시카고지사〉 시카고 한인학교연합회가 25일 하오7시 한인회관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금주의 행사▷

(11월2일~8일)

◇11월4일(수)하오7시 한인 라이온스클럽 만찬및 강연회
곳 : Yorkdale Holiday Inn(401 Hwy & Dufferin)
연락처 : 298 -3584

◇11월6일(금)하오6시3 분 실업인협회 정기이사회
곳 : Don Valley Holiday Inn (Don Valley Pkwy & Eglinton E, Don Mills)
연락처 : 752-7771

◇11월7일(토)낮12시30분 한인회주최 볼링대회
곳 : Playtime Bowl(33 Samor)
연락처 : 755-9288

◇11월7일(토)하오7시 선교교회 건축헌금 모금 음악회
곳 : 한인선교교회(1 Greenland Rd, Scar)
연락처 : 444-8002

◇11월7일(토)하오1시 노년회 수양강좌
강사 : 김보경 박사(이민가정의 전통적가족제도의 요동과 이에따른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재조정)
이처관 이사(이민생활과 윤리문제)
곳 : 한인회 강당
연락처 : 755-8079

◇11월7일(토)김용순무용연구소 개강
연락처 : 751-8891(하오7시 이후)

◆여행사특집 4회분은 기사가 넘쳐 11월3일자(화요판)에 실립니다.

▲은반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호두까기 인형」에 출연하는 윤효진양이 멋진 폼을 보이고있다. (관련기사 2면)

한국 암발병 평균연령46세
남성 위암, 여성 자궁암 많아

(서울29일=연합)암에걸리는 한국인의 평균연령은 46.1세(남성 47.2세, 여성 44.9세)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사실은 29일 대한암협회 회장 이장규 박사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국제암협회에서 발표된 "암환자의 신분" 이라는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박사는 최근 암환자들의 경향이바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1958~1967년의 10년간 12,192명의 암환자들을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동 보고서는 대한암협회에서 조사한 각종암의 연간 발병률과 변천및 주기도 아울러 취급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걸리는 5종류의 암은 위암, 간암, 임파선암, 피부암, 구강암의 순이고, 여성들에겐 자궁암, 위암, 유방암, 난소암, 임파선암등이 많이 걸린다.

폐암, 자궁암, 갑상선암은 도시거주환자 들에게, 식도암, 피부암, 위암및간암은 시골거주 환자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10년 일찍 암발병률을 보이며 자궁암은 여성에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타입이다.

社 告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연 10여%의 물가상승률에도 불구, 80년1월부터 월 8달러의 구독료를 고수해온 본보는 더이상 재정적 중압을 견딜 수 없어 오는 12월1일을 기해 월 구독료를 9달러, 연 구독료(선불)를 99달러로 인상합니다.

식품점등 가두판매 가격은 당분간 종전과 같습니다. 12월1일 이전 구독료 납부자는 종전 구독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5일 토론토에서 발간하는 교민사회 최초의 일간지는 인플레 영향이 아니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많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달에 1달러가 오르는 새 구독료는 경비 인상분 보충에도 미흡하지만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 분발, 진정 "교민의 벗"다운신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독자들의 큰 이해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 한국일보 —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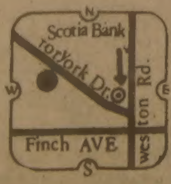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 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률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 · 한국인사범 직접지도
KYONG LEE TAEKWON-DO CENTRE
H.Q.: 615 YONGE ST., at Isabella, Toronto (416) 929-5511
NORTH: 2281 YONGE ST., at Eglinton, Toronto (416) 483-4002
EAST: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Scar (416) 759-2500
OVER ALL CALL (416) 962-300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SSW

폴랜드 1시간 총파업 단행

식량부족, 노조활동 방해가 원인

28일 정오 1천만 노동자 참가

◇폴랜드 노조 솔리대리티 지도자 레흐·바웬사가 파업전날 수만명 노조원들 앞에서 28일 전국적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이연설은 전국 노동자들에게 TV중계 됐다.

1천만명의 폴랜드 노동자들은 28일 정오를 기해서 폴랜드공산당 지도층에 반발, 전국적으로 한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솔리대리티 노조의 지시로 사이렌소리와 함께 전국의 모든 공장은 가동을 멈추었다.

공산당지 트리부나·루두는"우리의 조국을 파업에서 구제하자. 그들(솔리대리티 노조)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파업중지를 호소하였으나 전국의 1천만 노동자들은 이와같은 호소를무시하고 반항의 표시로 팔에 빨강과 하얀색띠를 두르고 공장과 그밖의 건물에는 깃발과 현수막을 걸치고 농성했다.

이들은 한시간후 예정대로 파업을 해제, 정상근무에 들어갔다.

이번 솔리대리티의 파업명령은 악화되는 식량부족, 경찰의 노조활동방해, 정부가 경제문제를 비당사회위원회에 넘기기를 거부하는데 맞서서 행해진 조처다.

폴랜드에는 이미 약12,000명 노동자들의 산발적파업이 지난 15일간 계속 됐었다.

이번 파업은 노조창설14개월만에 두번째로 큰 전국적규모의 항거다.

폴랜드 공산당 정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국가는지금 위급상태에 있으며, 더 이상의 파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이 끝난 2시간후폴랜드 공산당은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파업으로 당내 주요요직의 개편이 예상되며 중앙위원회에서 10일전 만들어진 파업중지 명령을 어떻게 효과있게 실행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토의됐다.

파업전날 TV에 출연한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내일의 파업이 우리의 마지막 파업이 되기를 소망한다.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소견을 피력했다.

한편 모스크바 언론들은 노조가 정권을 잡을려고획책한다는 폴랜드 정부의비난을 그대로 보도했으며, 폴랜드군 기관지는 파업으로 조국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폴랜드 국방성은 현재 4천명의 군인들이 4~5명씩 한조가 되어 2천개의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수의 노동자들은 28일 정오의 파업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파업에 돌입, 1~2주일동안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미 국무성은 영아급식계획에 따라 폴랜드에 2,900만달러 상당의 긴급식량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소련의 타스통신은 솔리대리티는 파업을 통해 폴랜드경제를 붕괴시킨 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며 폴랜드 공산당은 솔리대리티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야한다고 했다.

폴랜드 정부는 야루젤스키 장군의 집권이후 강경노선을 펴고있어, 폴랜드군과 솔리대리티의 충돌, 소련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폴랜드인 이민특혜

방문자도 이민신청할수 있어

액쉬디 이민장관은 어지러운 정치, 고갈되어가는 식량위기에서 탈출하는 폴랜드인에게 캐나다 영주의 길이 열릴 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27일 연방 하원의회에서 액쉬디장관은 폴랜드 인들이 좀더 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민법을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은 캐나다밖에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이민법 완화조처로 캐나다에 방문자신분으로 들어와 있는 약1,500명의 폴랜드인들이 구제받게 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에 친척이있는 방문자들은 직접 캐나다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이 폴랜드에 아직 있는 방문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검토되고있는 동안 1년간의 노동허가를 받아 일할수있게 되었다.

액쉬디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완화된 이민법 적용으로 폴랜드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액쉬디장관의 이번발표는 폴리쉬-캐네디언 단체들과 야당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

액쉬디장관은 또 내주 하원에서 발표될 정부의 82년 이민계획안에서 폴랜드 피난민에 대한 조항(규정)이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도 폴리쉬 방문자들의 수는 그 전년보다 25%나 증가했다.

액쉬디장관의 이와같은 조처는 지난15일 인도인방문자들의 영주권신청을 기각하고 인도와의 무비자협정을 파기한 사건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인도인(시크족)들은 정치적이유로 망명을 신청했으나 액쉬디장관은 이들이 경제적이유로 이민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청을 기각. 이번폴리쉬들의 구제경우와 비교할때 인종차별의 인상을 주었다.

<문화상식>

노벨상(賞)

— 그 취지와 연혁

올해 각부문 노벨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노벨상은 잘 알려진대로 스웨덴의 다이나마이트 발명가 알프렛·노벨의 유언에 따라 설정된 상이다.

1896년 그의 유산을 기금으로 시작된 노벨상은 인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진리탐구의 노력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01년 첫 수상자를 결정한 이래 2차대전 기간인40~42년 3년만 거르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8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상은 물리·화학·의학, 혹은 생리학상과 문학상·평화상, 그리고 69년부터 추가된 경제학상을 합쳐 6개부문이다.

각부문별로 약 5만 달러 정도의 상금이 수여되는데, 수상자는 상금액수완 비교할 수 없는 영예를 안게된다.

수상자의 선정은 부문마다 다르다. 그래서 발표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진다. 정식시상일은 노벨의 올명일인 12월10일.

물리·화학부문은 스웨덴화학아카데미가, 생리·의학부문은 스톡홀름의학연구소가, 문학상은 스웨덴 문학아카데미가 담당한다.

평화상은 스웨덴 국회의 원중에서 선출된 5명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종·국적·성별·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면면을 보면 20세기 세계 명사들의 인명록을 보는 것과 같다.

1901년 국제적십자 사를 창립한 스위스의 J·H·듀낭과 국제평화동맹을 설립한 프랑스의 경제학자 F·파시가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그후 슈바이처 박사, 함마숄드 전유엔사무총장, 마틴·루터·킹 목사에서 작년 데레사 수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일생을 실천한 「인류의 양심」들이 평화상의 수상자가 됐다.

정치인으론 루즈벨트, 윌슨, 브란트, 사또 전일본수상, 베긴, 사다트, 키신저등 한시대를 주름잡은 거물급이 다수 끼어있다.

문학상 수상자를 보면 20세기 문학사조의 거성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같다. 인도의 타골을 비롯, 키플링, 예이츠, 버나드·쇼, 베르그송, 토마스·만, 헬만·헷세, 샤르뜨르, 펄·벅, 헤밍웨이, 앙드레·지드, 까뮤…. 인류의 간판급 최고지성을 총망라했다 싶이 한다.

68년엔 일본의 가와바다·야스나리가 「설국(雪國)」으로 문학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혹자는 노벨상도 로비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상의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없지 않다. 역대 수상자들이 구미(歐美)선진국에만 치중됐다는 비난도 받는다.

그러나 노벨상은 인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뽑아, 상 자체에 누구도 도전하기 어려운 전통과 권위를 안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본국에서 전해진 반가운 소식으로 한국문인의 작품이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심사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김동리(金東里)의 소설 「을화(乙火)」가 그것이다.

심사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로 흥분할 일은 아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한국문학을 꾸준히 해외에 소개하면 언젠가 한국에도 문학상이 돌아올 날이 있으리란 기대를 새삼 갖게 되는 것이다.

「서울올림픽」이 꿈에서 현실로 이뤄지듯이 말이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氷板의 妖精

아이스쇼 「호두까기 人形」에 출연하는 尹孝珍양

76년 올림픽후 쇼단「아이스 카페이드」에 入團

춘향전등 민속물을 아이스쇼로 편성, 소개할터

72년도 한국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으로도 활약

미국 프로아이스·스케이팅계에서 활약하는 교포 윤효진양(23)이 오는12월8일부터 2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리스마스특집 아이스쇼「호두까기 인형」에 주연급으로 발탁됐다.

「호두까기 인형」(차이코프스키작곡)은 발레로서는 많은 공연을 가졌으나 빙판에서는 미국 최초로 시도되어 빙상계는 물론 일반연예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세계적인 명성의 아이스·카페이드(ICE CAPADES)의 초연 「호두까기 인형」은 지난76년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도로시·해머양도 출연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배역선정에서 저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윤양은 『지난동안의 끊임없는 연습과 코치의 지도덕분』이라고 말했다.

윤양의 코치 존·A·W닉스(JOHN A·W·NICKS)는 미국빙상계에서는 올림픽스타를 많이 배출한 권위있는 코치로서 윤양을 지난 73년부터지도해 왔다.

72년도 한국피겨스케이트 챔피언, 75년과 76년에 세계피겨스케이트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윤양은 76년 영국 리치먼드트로피대회에서 싱글종목 3위를 차지했으며 또한 76년 인스브룩동계올림픽에서는 입상은 못했지만 규정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해 올림픽 체육기자들이 선정하는 베스트5에 선정되어 빙상계의 관심을 모았다.

윤양은 [illegible] 세계선수권대회나 동계올림픽등의 심판 판정은 국력의 영향이 많아 어떤때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고 전하기도.

76년 올림픽을 끝으로 아마추어를 끝내고 세계적인 쇼단인 「아이스 카페이드」에 입단, 프로로 첫발을 디딘 윤양은 2년동안 아이스카페이드스의 솔로리스트로 활약하다 현재 「아이스 카페이드텔리트」라는 아이스 링크체인의 코치를 맡고 있다.

프로피겨스케이트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알려진 이번 「호두까기 인형」에 출연케 된 윤양은 『이번이야말로 세계적인 프로스케이트선수로 성장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피겨스케이팅은 무용, 기계체조, 음악과 기하학등의 종합적인 미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지난72년 도미, 7개월만에 피겨스케이팅의 정상인 8급을 인정받은 윤양은 앞으로 한국의 춘향전등 민속물을 아이스·쇼의 내용으로 재구성해 미국안에 전파시키며 또한 교포들을 위한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계속 프로그램작성법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윤양은 은퇴후에는 세계적인 심판자격을 획득하여 한국선수들이 국제무대에 진출을 돕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미국인사회에서 동양인으로서 너무나 [illegible] 남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윤양은 독창적인 스타일 창조를 강조. 윤양은 『스타의 길은 혼자서 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포들이 성원해 준다면 외롭지 않게 정상을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샌프란시스코지사)

THE CITY NEEDS YOUR HELP

We need your help in broadening the representation of racial and ethnic minority groups, women, and disabled people, on City of Toronto Boards and Committees, to better reflect the Cosmopolitan nature of the City.

By the end of the year, the following citizen appointments must be made:

Agency	No. of Appointments	Remuneration
Book Award Selection Committee	(5)	-
City Cycling Committee	(9)	-
George Brown College Board of Governors	(1)	-
Local Board of Health	(3)	Chairman $8,270 Vice-Chairman 4,774 Member 4,178
Metropolitan Toronto Library Board	(1)	-
City of Toronto Planning Board	(2)	Chairman $4,178 Vice-Chairman 3,819 Member 3,581
St. Lawrence Centre for The Arts Board of Management	(5)	-
Toronto General Hospital Board of Trustees	(5)	-
Toronto Historical Board	(5)	-
Toronto Public Library Board	(1)	-
Toronto Recycling Action Committee	(11)	-

Do any of these committees interest you? With our new Outreach Programme it's easy to apply. Just write us; outlining which one(s) you're interested in, and your qualifications. A nomination committee will choose the candidates best suited for the various positions.

Your application must be received by the City Clerk, 2nd Floor, City Hall, Toronto, M5H 2N2, no later than November 16,1981.

For additional information call Ms. Dorothy Rusoff at 367-7193 or Mr. Earl Miller at 367-7191.

CITY OF TORONTO

함께 성장하는

캐네디안들. 그들은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출신들이며, 캐나다의 많은 지역 출신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크고 훌륭한 국가의 자랑스런 시민들로써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고 있읍니다.

10년전 정부에서는 복합문화정책을 공식화 했을때, 우리의 이 거대한 땅덩어리의 문화적 상기점을 인식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가 형성된 많은 세습문화권 사이의 이해의 정신적 앙양및 성장하는 발전에 대한 공양이었읍니다.

GROWING TOGETHER
ANNIVERSARY
10
MULTICULTURALISM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ANNIVERSAIRE
S'ÉPANOUIR ENSEMBLE

복합문화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련우 이번 10주년기념일이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다도 강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우리 국가의, 자신들의 보다나은 이해를 가져옴을 지속시킬 미래의 우리 축하식전에 참가합시다…

함께 성장하면서.

Canada

Minister of State Multiculturalism
Ministre d'État Multiculturalisme

학점내세워 치근대는 교수들

캠퍼스内 性的희롱 만연

UCLA·UC버클리등서 피해女大生 20%나

(LA지사) 카렌은 영어를 전공하는 UCLA 1학년생이었다.

35세의 남자교수가 클래스 후 그의 사무실로 오라고 가끔 불렀을때 카렌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우트는 도수가 잦아지고 휴일을 함께 보내자는 요구에 더해 교수의 입에서 공부가 아닌 성에관한 이야기가 자꾸 튀어나오자 카렌은 당황했다.

그러나 학기말시험은 다가왔고 카렌은 교수가 요구하는 「개인 교습」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결국 「개인 교습」을 계속하며 좋은 학점을 얻었던 카렌은 다음학기엔 수강과목을 바꾸었으며 3년이 지난 요즘은, 그때일이 악몽같았다고 말한다.

직장여성들이 상사에게 시달리는 이른바 「성적희롱(SEXUAL HARASSMENT)」이 캠퍼스에서도 학점을 무기로 여대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UCLA여성센터의 티나·오클랜드 소장은 최근 LA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희롱은 UCLA를 비롯, 미전국대학에서도 흔히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교육자문 전국위의 통계에 의하면 교수들에게 성적으로 희롱당한 여대생은 미전국 여대생의 10~20%, 자퇴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정확한 통계를 낼수없는 이유중 하나는 이런 부정을 고발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UCLA의 경우, 여성센터나 캠퍼스 조사관에게 호소하기도 하지만 친구에게 말하거나 혹은 덮어두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USC에서도 마찬가지다.

캠퍼스시큐리티 오피서인 캐롤·스틸은 『와서 이야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지만 성적희롱은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는것같다』고 인정했다.

캘리포니에선 각UC 캠퍼스의 대표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중. UCLA 총장이 임명한 태스크포스는 우선 첫단계로 성적희롱에 대한 경고성명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플레이보이 雜誌들고 해부학 강의하는 교수

치한교수 퇴치案内書발부·警告 聲明발표 도

UC버클리에서는 같은 교수에게 피해를 당한 12명의 여대생들이 모여 「성적희롱에 대처하는 여성조직」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교수들이 치근덕댈 경우 이를 퇴치하는 방법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매서추세츠 대학에서는 아예 변호사들의 자문아래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주립 14개 대학에서도 같은 작업을 진행중이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학점을 받은후에 고발하도록 편의(?)도 허용되었다.

UCLA의 오클랜드소장은 전형적인 피해학생은 대학원생들이라고 말한다.

대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 교수를 피해 다른과목을 택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

『파, 육체적 피해뿐이 아니죠. 문학을 설명하면서 가슴언저리만 쳐다보는 눈길이나 음탕한 언어들도 얼마나 참기 힘든지 모릅니다』

오클랜드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UCLA의 한 생물학교수는 해부학강의를 하면서 도표대신 플레이보이 잡지의 여자나체사진을 들고 설명한다는것.

한여자 대학원생은 교수로부터 심야에 실험실에서 재시험을 보아야 된다고 말을 듣고 처음엔 항의했다.

그러나 낙제를 택할수는 없는 형편. 그여대생은 밤늦게 실험실에서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UCLA 챈슬러스컴미티의 셀리아·쿠엘의장은 그러나 이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1977년 예일대학에서 처럼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때까지는 피해자가 정당하고 쉽게 이런 부정을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것.

「공부를 도와주려는 친절한 교수」가 「불라우스를 벗기려는 치한」으로 변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엘비스 前轍 밟는 歌手 글렌·캠벨

暴飮·폭력일삼아 破婚까지

컨트리송 가수 글렌·캠벨(45)이 엘비스·프레슬리의 전철을 밟고있다는 소문이 돌고있다.

프레슬리같이 마약을 복용치는 않지만, 폭음을 일삼아 항상 몸이 불편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스키나 진을 마신후 제정신이 아닌상태에서, 주위사람들을 쇼킹하게 하는 갖가지 폭력적이고 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다.

지금까지 그가 취한 이상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언젠가 걸프렌드인 타냐·터커(23)의 이를 부러뜨렸으며, 화가 난 나머지 가구를 부수는가 하면 총을 갖고 다니며 그의 적을 죽인다고 이야기했고, 두달간 성경을 들고 다니며 낯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같은 그의 행위는 결혼을 약속한 터커의 불만을 사, 결국은 둘의 사이가 갈라지고 말았다.

그중에도 결정적으로 터커를 캠벨로부터 멀어지게 한 원인은 지난 9월 루이지애나에서 있었던 난투극.

9월23일 캠벨과 터커는 보시어시에서 있었던 터커의 컨서트를 위해 그곳 트·보시어호텔에 각각 투숙했었다.

그리고 그날오후 캠벨은 달라스의 용무를 보기위해 그곳에 갔다 돌아왔는데, 올때 그의 손에는 난초와 제인이 들려져 있었다.

헌데 곧 그들의 방에서 난투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술에 만취한 캠벨이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다.

그뿐아니라 TV위에 의자를 내던지고, 가구를 파괴했으며 문짝까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난폭한 행동을 했다.

캠벨은 터커에게 총을 겨누었으며 터커는 의자를 그에게 던지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결국 새벽5시 호텔경비원이 와서 조용히 할것을 요구했으나 잠시후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6시에는 경찰이 동원되어 캠벨은 그 방에서 결국 내쫓겼다. (LA지사)

▲엘비스·프레슬리를 닮아간다는 글렌·캠벨과 역시 컨트리가수인 걸프렌드 타냐·터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 $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533-2361~4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86)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이할미우트의역사를 보면 단 몇건의 살인사건만이 기억 되었다. 한 경우를 보면 긴 북극의 겨울밤 한사람이 미쳐 자기의 두 형이 자기목숨을 노린다고 생각, 둘을 죽이고 주민들을 모두 위협했다. 북극 히스테리아의 피해자인 그는 남아있는 동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처형되었다. 유아살해는 선교사와 3류급 작가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제목이다.

비극은 이런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긴다는데에 있다. 유아살해는 특히 어린아이를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이할미우트에게는 가장 비참한 경우에 일어난다. 어린이들은 우리가정 중에서도 특히 귀염을 받는 아이들 보다 더 깊은 애정, 관용과 친절속에서 자란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번식에 대해 훨씬더 원시적 감정을 갖고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절망적인 경우가 생긴다.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생명은 생존우선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생존의 최우선권은 각가정의 가장이며, 사냥꾼인 남자에게 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해오기 때문이다.

다음 우선권은 부인에게 있다. 부인 다음은 나이가 제일어린 아이다.

남자들은 사냥이나 사고등으로 많이죽어 항상 여자들이 남아돌아가며 따라서 남자들은 부인을 다시 얻을수 있고 부인들은 또 애를 낳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 여자일수록 우선순위가 낮다. 그들은 더이상 임신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권 경쟁에서 제외된다.

부부가 생존하면 자식을 또 나을수 있으므로 아이들을 잃는다는것은 감정적으로 비참할 따름이다.

늙어서 사지를 제대로못쓰는 사람들과 늙은 여인들은 항상 언제라도 죽을 각오를하고 살아야 한다. 굶주림으로 사람이 죽어갈때 늙은이들은 나머지 식구들이 좀더 살수 있도록 스스로 죽음을찾아 밖으로 나간다. 늙은이들은 보통은 자기수명대로 살지못해 가끔 그들은 자기손으로죽음을 택한다. 이들에게 자살은 영웅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공포이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및 어린아이들의 생명에 값을 매긴다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지만아들딸이 죽어가는데 누가늙은이들을 염려 하겠는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사랑하는 사람이 겨울의 어둠속으로 걸어나가는 무서운 광경을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랑은 이론을 극복한다.

나는 오텍과 그의 네째아이 칼라가 함께 지내는 것을 보아온 터였고 다른 세 아이들은 한살도 되기전에 모두 죽은것을 알고 있다. 나는 칼라에게 대한 오텍의 굉장한 헌신을 보았고 아이에게 위험이 닥쳤을때 그가 얼마나 낙심하는지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오텍의 아이들이 죽음을 막지못한 그의 심정을 알고 싶지도 않고 또느껴보고 싶지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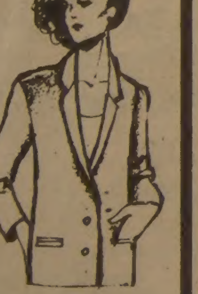
이누이트가 자기들의 어린아이를 살해한다고 생각하게하는 윤리론자들이 쓴 책들을 아무데서나 파는것을 말릴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잔인한 마음을 가진 이누이트에게 백인의 사랑을 주입시켜야 한다고 떠들게 내버려 두는수밖에없다. 그러나 그들의 독설적인 입들을 죽음이 그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는것을자기들만 알고있는 오텍과그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북극의 평원에 죽은아이의 호수라고 불리는곳이있는데 이 호수의 꼭대기에 작은 여러개의 돌로 도정표를 세워놓았다. (계속)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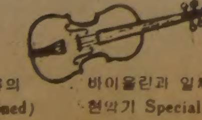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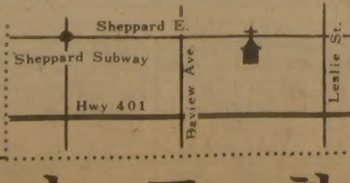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박준하 목사 취임예배

서울연회 도봉지방 1대 2대 감리사님으로 수고하시고 목회경력 21년, 서울 삼양중앙교회에서 17년간 교회를 맡아 크게 부흥시키신 박준하 목사님을 금번 저희 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사오니 오시여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11월8일(주일) 오후5시
장 소 : 서머나감리교회 (416) 223-3121
주 소 : 675 SHEPPARD AVE. WILLOWDALE, ONT. M2K 1B6
연락처 : (416) 752-9860-박준하 목사, 서인구 목사
752-9727-김옥희 전도사, 박준욱 장로
751-5831-엄지욱 장로,
755-7841-고광언 장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머나교회
교우일동드림
SMYRNA KOREAN METHODIST CHURCH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6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오전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 638-2553

입주하셔서 두아이와 살림을 도우실분 구함 :
주 : 210달러 드림
☎ : B) 248-4013, R) 244-0765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 769-4726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도너스 샵에서 일하실 파트타임 여자헬퍼구함 :
월~금 하오3시반~하오9시반, 토 상오8시~하오6시
☎ 598-1140 (칼레지 써브웨이 안에 있음)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훔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주말에 일할 여학생 캐쉬어 구함 :
스카보로 지역
☎ : 438-1528

토요학교 밴 운전하실분 구함 : 토론토 서쪽지역에 거주하는 분. PAY : $30(약4시간 소요)
☎ : 960-0074 세알한국인학교

산후 조리 해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우대함
☎ : 923-4354

FULLTIME캐쉬어구함 :
경험있는 분에 한함, 학생도 가능
☎ : 625-1620, 미시사가 지역임

풀타임 남자 가게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4-6311(B), 284-8862(R)(오후4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어 헬퍼구함 :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4시~8시반까지
☎ : 368-8147, 39 BELSHAW PLACE.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구함 : FRUIT MARKET
744 DUNDAS W. Dundas×Bathurst
☎ : 368-8077, 491-3623(밤9시이후) MS. LEE

시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출퇴근 하시면서 4개월된 애기 보아주실 분
스카보로지역(미드랜드×핀치)
☎ : 299-1103(오후5시 이후 전화요함)

허드레일 하실분 구함
오리엔탈 파레스
☎ : 533-3545

매매및 양도

74년형 BUIKE : 뉴페인팅, 보증서있음
A-1 CONDITION.
☎ : 759-3923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셀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도나스 샵 매매 :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55 KENSINGTON AVE. Tor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 코메스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77년형 폰티악 밴트럭 :
5만 마일, 3천5백달러, 6기통
☎ : 248-5472

T. V. 스테레오 최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플라자 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600, 아스킹 $82,000, 리스8년+옵션
☎ : 255-5038 미세스 BORDA

그로서리 스토아와 아파트매매 : 그린우드 레이스 트랙에 있음. GOLD YEAR REALTY의 JOHN CHING에게 연락바람 ☎ : 960-4610, 977-6347

KNOB HILL FARM(너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읍니다.
☎ : 278-3975 270-7072(6시이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연간 세일 : 백만달러
리자이나 지역에 있음.
토론토연락처 : 624-1289 미스타 정

짧은 그로서리 가게, 과일가게 :
마른음식과 땅콩들, 좋은 위치이며 주위엔 많은 아파트 빌딩과 집들이 있음. 주매상 : $3,500.
쉽게 번창할수 있는 것임. 대강 1,600sq. feet.
주인은 딴 사업관계로 팔음.
ASKING : $12,500+스탁
☎ : 425-1255

드라이크리닝 가게세일
세일 $145,000 FOR YEAR,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50,000, 오렌지빌 내에 있음(미시사가에서 30분거리), 38년간 운영된 이익좋은 비즈네스임
몬트리올 · 트러스트 CO. DAVE LAL(데이브 · 랄)
※이외에도 모든 종류의 비즈네스를 갖고있으니 문의바람.
☎ : 275-5555, 276-3229

아파트먼트 싸이즈 맞는 피아노 팝니다 :
$1,500
☎ : 783-6871(낮), 636-1430(저녁)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
가격 : $6,900+스탁
☎ : 657-1424, MR. CHRIS(크리스)

TUCK SHOP을 꼭 원하시는분은
☎ : 749-1316 으로 연락바람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VISA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 : 533-2361

집·방세·하숙

방세놓습니다 : 1 베드룸(살림할수있음)
BLOOR ST. W. 중심가
☎ : 533-0168(PM1시~PM9시) 미스타 김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신호등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평가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3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 · 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기 타

SOMÉ JEWELLERY 쏘메쎄라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 · 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블론디 本社特約 連載漫畫 딘·영作

"우리 지금 포커판을 벌이려고 하네" "나도 끼워주게"
"남편들이란 조그마한 즐거움을 위해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기기만 하면 천재처럼되거든"
"여 보"
"웃으세요, 여보, 그래야 이웃사람들이 우리가 장난치고 있는줄 알테니까요"

해외 걸작 만화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수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歌謠따라 歲月따라

特輯

尹心悳의「死의讃美」서 趙容弼의「미워…」까지

한국 歌謠 百年史 前半期

「노래는 흘러 1百年, 人生도 흘러 일배년…」어느 時代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노래의 변화는 그 당시의 社會相을 반영하는 변천史라고 말할수 있다. 올해로써 해방 36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歌謠史로 보면 어느덧 1백년을 맞았다. 해마다 10월18일은 한국연예협회가 제정한「歌手의 날」. 이 날을 계기로 민족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지는「한국가요 百年」(尹心悳에서 趙容弼까지)을 총정리해 본다. 한국가요 百年은 省音社刊「歌謠半世紀」와 黃文平著「노래百年史」와 관계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前·後半期로 나눠 엮었다.

◇한국 최초의 여가수 尹心悳。

◇한국 최초의 남성 가수 蔡奎燁。

◇ 高福壽

◇ 南仁樹

1926년 尹心悳이 最初로 레코드 취입

■새 소리판 왔소

20세기의 특징은 소리의 革命이라고 할수 있다. 이 소리와 혁명이 동양에 진출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람의 精氣를 뽑어냈었다고 믿었던 동양사람에게 레코드 소리를 들려주게 된 역사와 연대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 우리나라에는 1880년 大同江을 거슬러 올라간 異樣船에서 프랑스신부가 평양감사에게 축음기를 소개한 것이 효시.

그뒤 1886년에 忠南 牙山의 海尾縣監이 유태인 오프펠트가 몰고 온 商船에 초대받아 영국의 스코트가 개량한 연통식 레코드를 들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일본은 같은해인 1886년에 쓰시마섬 영주인 무쓰(陸奥宗光 미해응주의 시댄)가 미국에서 처음 납관식 실린더 축음기를 도입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보다 1년뒤인 1887년 미국공사 알렌이 우리나라에 축음기를 가져왔는데 이 당시의 이름은 寫音機, 留音機, 蘇音機, 留聲機였다가 나중에 축음기로 바뀌었다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축음기가 판매되기 시작한것은 1899년3월19일자 신문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그때쯤으로 추정된다.

당시 그 신문기사에는「서양 격치가(格致家)에서 발명한 유성기를 매구(買求)하야 서서봉상사전(西署奉常司前)113통9호에 置하였는데…」란 내용이 실려있다.

1905년께에는 논밭을 팔아 신기한 소리기계를 사는 사람이 늘어갔다. 당시 高宗皇帝는 빅터회사의 기술자인 코란을 초청, 御殿에 원통식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자리에 당시 名唱이던 朴春載가 불려나와 나팔통에 입을 대고 우리나라 史上 최초로 원시적인 녹음을 했다.

원통식 납관에서 朴春載의 판소리가 울려나오자 高宗은 깜짝 놀라며「춘재야, 네命이 10년은 감했겠구나」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리를 녹음하면 그 사람의 精氣를 녹음기가 앗아갔다고 생각한것이 그때의 사고방식이었다.

3년후인 1908년 名唱 李東伯이 취입한「赤壁歌」가 나왔고 1913년 每日新報 광고란에는 다음과같은 레코드 판매광고가 다시실렸다.

「광고, 새 소리판 왔소, 소리 넣은 사람 宋萬甲, 朴春載, 金蓮玉, 趙牧丹, 단양폭 판(2장분 1장)에 金2원, 유성기 한틀에 15원 이상, 20년 사용 보증서 부함. 京城 本町 五丁目。」

그뒤 우리나라에는 일본인의 창작가요와 唱歌, 찬송가, 서양가요등이 레코드로 소개됐지만 우리가요가 취입된 것은 훨씬 뒤였다.

■현해탄의 情死

우리나라 歌謠史上 최초로 가요 취입의 기록을 세운 사람은「死의 讃美」를 부른 尹心悳이었다.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東京 우에노(上野)音樂學校를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尹心悳이 이바노비치 作曲「다뉴브강의 물결」곡에 스스로 지은 가사를 붙여 東京에 있는 日東축음기회사에서 취입을 마친 것은 1926년 8월1일。

이로써 우리나라 가요가 레코드를 통해 보급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취입을 마친 이틀 뒤인 8월3일, 關釜연락선 德壽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던 尹心悳은 함께 돌아오던 애인 金모씨와 함께 검푸른 현해탄에 몸을 던졌다.

당시 이 사건은「현해탄 激浪속에 청춘남녀의 情死」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됐다.

「지난 3일 오후11시 下關을 떠나 釜山을 향해 가던 關釜連絡船 德壽丸이 4일 오전 4시께 對馬島근처를 지날 즈음, 양장 차림의 여자와 중년신사가 서로 껴안고 갑판에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남자는 金수산(30), 여자는 尹心悳이었다.」

이렇게 해서 尹心悳은 세상을 등졌지만 死의 讃美는 공전의 히트를 해서 1930년대까지 장안은 온통 이 노래가 휩쓸었다.

◇1940년대를 주름잡았던 3대 가수。좌로부터 南仁樹, 高福壽, 金貞九씨。

「死의 讃美」부른 歌手 情死후 노래더욱히트

「봄노래」로 人氣누린 蔡奎燁은 비참한終末

死의 讃美가 발표된지 4년이 지나기까지 레코드가요는 代를 잇지 못하고 있었다. 1930년「빅터」와「콜롬비아」두 레코드사의 京城支店이 설치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가요의 유행은 레코드보다 순회극단의 幕間歌手들의 노래로 번져갔다.

당시 막간가수의 제일인자는 하세가와·이치로(長谷川一郎)란 이름으로 일본노래도 잘 불렀던 蔡奎燁. 蔡奎燁은「오너라 동무야…」로 시작되는「봄노래」로 인기를 모았고 스스로 지은「유랑인의 노래」「고독한 몸」외 구슬픈 멜로디로 대중의 가슴을 울렸다.

■남성취입1호 蔡奎燁

1930년「봄노래 부르자」를 취입함으로써 남성가수 취입 1호 기록을 세운 그는 그후「애로와 쿠로」,「술이란 눈물인가 한숨인가」,「봉자의 노래」,「순풍에 돛을 달고」,「명사십리」,「제2 유랑극단」,「國境의 燈불」「비오는 요꼬하마」등을 계속 내놓았다.

1930년대 중반에 일본에 건너가 활동하던 그는 귀국할때 나비 넥타이에 검정 연미복을 입고 나타나 주위로부터 멋장이 소리를 듣기도 했다.

또 白年雪 南仁樹등 후배들의 인기에 밀리던 초로기에는 유난히 심하게 벗겨진 대머리에 숯검정을 바르고 무대출연을 하는등 안간힘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뒷날 흥행사로 전향했던 蔡奎燁은 49년 빚에 몰려 월북, 끝내는 아오지탄광에 끌려가 처참한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蔡奎燁과 거의 동시에 가요계에 데뷔, 蔡奎燁과 인기 각축전을 벌였던 가수로 崔南鏞을 손꼽을수 있다.

崔南鏞은 후리후리한 키에 고수머리 미남으로 목소리가 아주 고왔다.

그는 蔡奎燁과 함께 콜롬비아에서 전수린曲인「실버들」로 데뷔, 그후「사공의 노래」, 신민요인「三城歌」를 취입하는 한편「나는 싫어요」를 李銀波와 아베크송으로 불러 히트했다.

35년도에는 전속을 太平으로 옮기면서「부서진 꿈」「흐르는 신세」「비오는 선창」、「哀傷의 浦口」를 불렀다.

미남가수 최남용, 멋장이 최남용 소리를 들으며, 항상 베레모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던 그는 한때 李光洙의 소설「無情」을 영화화 했을때 주제가를 부르면서 韓銀珍과 주연을 맡아 배우로도 활동한 적도 있다.

이 당시 女歌手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은 연극배우 출신으로 영화배우 활동도 겸했던 金蓮實이 있었다.

순정가련형의 미모에 초롱초롱한 눈매로 청중을 사로잡았던 金蓮實이 가장 히트했던 노래는 활동사진「落花流水」의 주제가인「落花流水」(일명 江南달)「강남달이 밝아서 님이 놀던곳, 구름속에 그의 얼굴 가리워졌네, 물망초 핀 언덕에 외로이 서서 물에 뜬 이 한밤을 홀로 새우네」

가슴 뭉클한 민족감정이 熱薫의 노래로 위장됐던 이 노래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훗날 콜롬비아를 통해 레코드로 나와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이즈음에 함께 활약했던 가수중「放浪者의 노래」,「베니스의 노래」,「봄은 저고리」등을 부른 귀여운 얼굴의 단발머리 소녀 姜石燕은 특히 젊은 가요팬을 많이 확보했고 李景雪은 성인층에 파고들었다.

또 이 무렵에 활약한 최초의 가요 작곡가는 金永煥이란 이름으로 활동사진 변사활동도 했던 金曙汀이 있었다.

「황성옛터」: 劇場안은 눈물바다

■「荒城옛터」의 탄생

1929년 어느날「白川」이란 지방의 한 여인숙에 한 무리의 순회악극단이 묵고있었다. 창밖에는 후두둑 후두둑 가을비가 내렸다.

빗발을 내다보던 악극단의 바이얼린 연주자 全壽麟은 문득 며칠전 開城 滿月臺에서 느꼈던 감회가 치밀었다. 全壽麟은 즉시 그 감회를 휴지 한구석에 써나가기 시작했다.

「황성옛터에 밤이 되니 月色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全壽麟이 느꼈던 감회는 바로 民族의 감회였다. 악극단의 대표였던 王平은 즉시 이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 曲을 완성한뒤 李애리수를 통해 서울 취성좌에서 첫선을 보였다.

「荒城옛터」가 청순한 매력의 歌姬 李애리수의 음성으로 극장안에 울려퍼지자 장내는 일시에 눈물바다로 변했고 그로부터「荒城옛터」는 우리민족 불후의 명가요로 영원히 남게 된것이다.

1931년 빅터와 콜롬비아 두 레코드사의 京城支店이 설치되면서 각지방에 특약점을 만들고 축음기를 월부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가요곡은 급템포로 일반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日本에 본사를 둔 레코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차려 포리돌레코드(34년), OK 레코드(36년), 킹레코드(37년)등이 잇따라 지점을 설치했다. 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태평레코드(36년), 돔보레코드(36년), 시에론레코드등이 설립돼 이때부터 1940년까지 가요계는 황금기를 맞았다.

이렇게 난립한 레코드제작회사들의 급선무는 새로운 가수, 특히 여자가수의 발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에는 가수를 광대패의 한무리로 봤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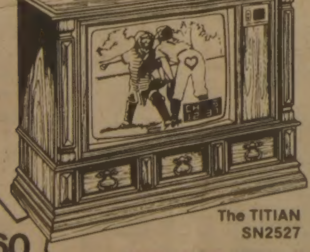
(제7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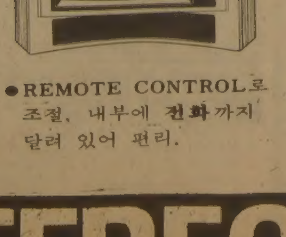
◇KPK악극단의 쇼「칠괄곡」에서 베토벤역의 尹富吉과 슈베르트 역의 金海松。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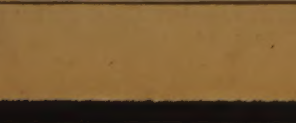
LIMITED TIME ONLY!
Oct. 18 through Dec. 17, 1981
ZENITH
THE GREAT CANADIAN REBATE
UP TO $60 INSTANT REBATE
with the purchase of this
ZENITH SYSTEM 3
26" Remote Control Console

ZENITH T.V. 특별 세일
모든ZENITH 씨스템3 T.V세일
…… 기간 : : 10월18일~12월17일까지 ……
※제니스 Co. 에서 $30~$60까지
CASH REBATE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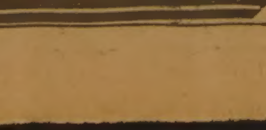

$60 INSTANT REBATE
The TITIAN
SN2527
Classic styling. Wood and simulated wood products in Dark Oak finish (SN2527DE) or Pecan finish (SN2527P). Casters.


●REMOTE CONTROL로
조절, 내부에 전화까지
달려 있어 편리.

$30 INSTANT REBATE
The HOLBEIN
SN1961W
Simulated grained American Walnut finish. Black pedestal base. Brushed Aluminum color accents.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頂上企業
첫째가 되기까지의 成功秘話
航空業界의 王 大韓航空

69년 赤字企業 KNA引受…KAL로 出發
3년만에 黑字내고 世界的 수준으로 飛躍

韓國의 날개 KAL소속 비행기는 美國의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스위스의 취리히、프랑스의 파리、사우디의 젯다、아프리카의 리비아등 전세계 항로를 누비고 다니면서 躍進 韓國의 實態를 보여주고 있다。

陸上과 海上運送의 王이 되어보려는 청운의 뜻을 품고 祖國이 光復된 45년11월1일 트럭1대로 韓進商事를 설립하며 기업의 토대를 착실하게 다진 趙重勳은 越南戰爭 당시 용역사업에 뛰어든지 5년만에 1억5천만달러라는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여 韓國企業史에 神話를 창조해낸 人物이다.

神話의 主人公 趙重勳은 69년3월1일 赤字투성이였던 대한항공공사(KNA)를 인수함으로써 막강한 財力을 내외에 과시했고 인수 수년만에 大韓航空(KAL)을 세계적인 대항공회사로 발전시키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였다.

KNA를 매도하기로 결정할 당시 정부에서는 이 기업을 맡아 육성시킬 民間財閥을 물색한 결과 최적격자로 재력이 있고 육상및 해상운수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韓國航空을 운영하고있는 韓進商事의 趙重勳이 적격자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趙重勳은 기업의 이윤추구보다도 국가적인 受任사항으로 알고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KNA인수문제가 거론될 때 한진상사 창업 당시부터 同苦同樂해온 金炯培전무와 趙重建상무는 한국과 같은 후진국가에서 항공사업을 민간인이 경영한다는것은 모험과 위험이 수반되며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할만한 자금이라면 전망이 두렷하고 장래성이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으니 다른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실패하면 월남에서 피땀 흘려 이룩한 한진상사 자체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모험은 절대 불가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들의 주장을 趙重勳은 일단 타당한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趙重勳은 이해타산부터 앞세우는 기업관은 현대사회에서는 통할수 없고 이제 기업인은 사회에 봉사할줄 알고 기업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직원들을 납득시켜 KNA를 인수했다. 한진상사가 막강한 富를 축적하게 된 근원은 월남전에서 고귀한 희생을 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댓가로 이루어졌다는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있는 趙重勳의 설득이 주효하여 만성 적자속에서 제 구실을 못하고있던 KNA는 새 주인을 맞이하여 KAL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

◇趙重勳사장。

韓進에서 인수했을 당시 KNA의 형편은 자본금 15억47만8천원에 누적 적자가 3억원、금융부채 3억2천만원、차관부채가 15억원、도합 27억4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 부채회사를 韓進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15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인원은 5백14명에 보유 여객기는 고작 8대、좌석 91석의 DC9 제트여객기 1대를 제외하고는 보잘것 없는 여객기 뿐이었다.

趙重勳은 「지식은 투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민간항공발전을 위하여 일선에서 뛰었다. 그는 機種의 현대화만이 KAL이 성장할수 있는 첩경이라고 판단하고 신종 비행기 도입등 사업방향전환을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財界에서는 韓進이 KAL경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으나 『반드시 成功하겠다』고 굳게 다짐한 趙重勳은 KAL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하고 세계 각 항공사의 판도를 지도위에 그려보는것을 비롯하여 각국의 승객동향·계절·지리적요인등 예상하기 어려운 제반 사연변수를 사전에 조사분석하는 치밀한 작전을 폈다.

69년 6월18일、KAL은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73년까지 동남아노선을 확충하고 美洲노선을 개설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이 계획을 수행하기위해 69년에는 F27기 4대、B720기1대를 도입했고、70년에는 B707과 B720기 각1대씩을 도입하고、金浦공항에 격납고를 건설하는등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71년에는 美洲진출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 과제를 푸는데 온갖 정력을 집중시켰다.

서울과 美國을 잇는 太平洋노선에의 진출은 한국 민간항공창립이래 숙원사업이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숙원만은 풀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숙원을 풀기에는 KAL자체의 노력이나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며 한미양국간의 항공협정등 무수히 많은 難題가 가로놓여 있었다.

KAL의 건의에 따른 정부의 노력으로 70년 2월9일에는 韓美항공협정개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고 71년 4월26일 KAL은 「민영화 2년만에 서울—도오꾜—로스앤젤레스間의 태평양횡단노선을 週3회 왕복으로 定期貨物便을 운항시키기에 이르렀다. 태극기도 선명한 B707기가 로스앤젤레스공항에 첫선을 보이게 된것이다.

◇국제선에 취항하고 있는 KAL의 747여객기。

太平洋노선開設…발판굳히고
世界1周노선위해 全力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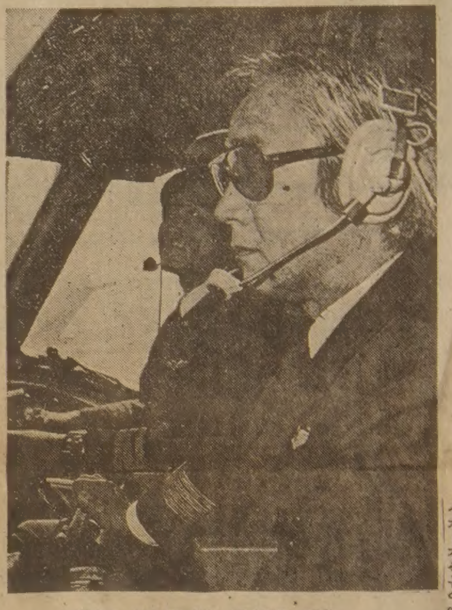
이어 72년 4월19일을 기해 여객기도 이 노선에 취항하게 되었으니 대평양노선의 개설이야말로 KAL이 세계의 항공으로 웅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다.

KAL 소속 비행기가 태평양 노선을 향해 처녀취항을 하던 날인 72년 4월19일 하오5시19분 金浦空港을 이륙한 KE002便의 1번기는 B707 4발 제트여객기로 기장 張景順과 金正昊、기관사 堅命錫、航法士 朴春植이 승무했다. 이 처녀여객편은 도오꾜를 거쳐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에 안착、이곳에 대가하고 있던 機長 高永一·明毅昌·李遠範·羅元默등 4명의 승무원이 교체·탑승하여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이 노선 개설초기 3개월동안의 탑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성과가 좋았다. 화물및 여객운송에서 처음부터 성공한 KAL은 여세를 몰아 이해 7월23일에는 도오꾜를 경유하지 않고 서울—호놀룰루—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직행노선을 주1회 운행하고 이어 10월에는 주2회 왕복으로 증편하는등 개설 초년도에 주4회 왕복노선을 운항하게 되었다.

서울—홍콩간의 2천4백50㎞가 고작이었고 장거리 비행의 경험이 없던 KAL에서 서울—LA간 6천2백95㎞라는 장거리를 운항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뒤따랐다고 한다. KAL이 국제적인 항공회사로 발돋움하게 된것은 美洲취항에 이어 歐洲노선과 中東노선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서울—파리間 노선이 73년 10월6일에 개설되어 유행의 도시 파리도 韓國人에게 아주 가까운도시가 되었다. 프랑스국영항공사인 에어 프랑스와의 공동운영형식으로 앵커리지 경유 서울—파리간 北極노선을 즉 1회 왕복으로 B707화물기를 운항하는데 성공한 KAL은 75년3월14일에는 정기여객노선도 개설하였으니 趙重勳사장의 최대 기업목표인 세계일주노선 완성은 進一步한 셈이 되었다.


◇機長이 747여객기를 조종하고 있다。

美國의 LA、프랑스의 파리에서 한국의 날개 KAL 비행기가 세계 유수의 비행기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는 모습은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긍지를 느낄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항공회사의 民營化는 成功했다』는 평을 부정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민영화성공의 주역 趙重勳이 그간에 기울인 노력 또한 높이 평가해 당연한 것이다. 그는 빚더미의 KNA를 인수한지 3년만에 KAL을 흑자회사로 전환시키는 경영 솜씨를 보였으며 太平洋노선을 취항한 무렵부터 한진그룹의 주력기업은 母企業인 韓進商事에서 大韓航空으로 바뀌었다.

韓進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인 趙重勳은 그룹회장으로서 많은 계열기업의 사장 자리를 전문경영자나 유공자들에게 맡기고 있으나 KAL 사장 자리만은 총수인 그 자신이 지키고 있다. 이 사실은 趙重勳이 민간항공육성을 위해 무한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표시로 해석할수 있겠다.

항공사업은 국력의 신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민간외교도 수행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 운영은 소홀히 할수 없어 그 스스로가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量보다 質的인 成長 모색

81년 현재 KAL의 社勢를 살펴보면 資本金 2백83억5천1백25만원、80년도 영업실적은 5천6백7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4·6%가 증가했으며 3백억원의 결손운영을 했다。81년에도 영업규모의 팽창은 예상되나 1백50억원의 결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KAL에서는 내다보고있다.

KAL이 독점기업이면서 적자운영하고있는 까닭은 막대한 固定費 투자의 증가와 연간1천7백억원이 소요되는 유류가격 앙등、국내선의 만성적인 적자운영、항공사간의 덤핑경쟁등 내외여건이 결손운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 세계의 항공회사 가운데 흑자를 내고있는 회사는 스위스 에어와 루프트한자(西獨)뿐이고 그밖의 대부분의 항공회사들은 적자를 기록하고있는데 美國에서는 결손폭을 줄이기 위해 항공회사끼리 자유합병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KAL의 경우 黃金路線으로 알려진 美洲노선에서도 적자운항하고있으며 中東노선만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KAL은 80년에 여객 3백60만명、화물14만3천4백톤을 수송하면서 10만7천시간을 비행하여 5천8백4억원을 벌어들였으나 그 결과는 赤字였던것이다. 그러나 이 해에 B747여객기 2대、화물기 2대와 B727신형기 4대、C212 소형기 1대를 도입한것을 비롯해서 LA화물터미널 건설등에 1천6백10억원을 투자했으며 서울—프랑크푸르트화물선、서울—바레인 여객노선등 신규노선을 개설하였다.

81년 현재 KAL 보유 비행기는 B747기 11대、B747SP 2대、DC10기 5대、A300B 8대、B707기 7대、B727기 6대、F27기 1대、C212기 1대、기타 2대、헬기 3대등이다.

한편 국제선 여객편을 보면 美洲지역의 서울—도오꾜—호놀룰루—LA선 週4회를 비롯하여 서울—LA선、서울—앵커리지—뉴욕등 4개선에 주15회 운항하고 있으며 歐洲노선에는 서울—앵커리지—파리선에 주3회、서울—마닐라—바레인—젯다—취리히선에 주2회씩 운항하고 있다. 中東노선에는 젯다—쿠웨이트—바레인등 5개노선을 개설、週11회나 운항하고 있다. 이밖에도 日本과 東南亞에 거미줄처럼 펼쳐진 노선을 쉴새 없이 날고 있는데 81년은 量的인 성장보다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제고로 質的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높고 푸른하늘을 일터로하여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KAL은 한 말로 표현하여 巨大企業이자 국가적인 기업이다.

이제 KAL은 13개의 기업체와 2개의 학교법인으로 구성된 韓進그룹의 주력기업으로 국내외에서 위세를 떨치고있는 반면 계열회사들은 묵묵히 일을 하고있을뿐 세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있다.

오늘의 KAL을 배태한 韓進商事(대표 金炯培)는 자본금60억원、종업원3천명규모의 육상·해상운송、항만하역업체로서 성업중이다. 68년에 설립한 韓逸開發(대표 趙重建)은 1천4백여명의 工大출신기사와、1천2백명의 기능공、6백여명의 행정요원들이 건설·토목·엔지니어링·설계·건축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진출 건설업체로 자본금 60억원。韓進觀光(대표 金一煥)은 78년에 4만8천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4백43만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린 관광 여행사로、자본금은 1억3천만원。韓國空港株式會社(대표 趙重建)는 국내외 주요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지상조업을 맡고있는 업체로 자본금 5억5천만원。

현 資本金 2百83억원…昨年比 64·6%增加
13개系列기업등으로 構成…그룹勢 날로伸張

韓國航空整備株式會社(대표 全明燮)은 공항에서 油類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자본금2억2천만원。大進海運은 화물해운업과 원양어업을 하는 회사로 연간 1천5백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자본금9억원、대표자 沈榮燮。韓進海運(대표 金容鈺)은 컨테이너선만을 보유하고있는 해운회사로 자본금은 50억원이다.

韓逸證券(대표 趙重烈)은 증권중개회사로 자본금 10억원 규모。東洋火災海上保險(대표 康允國)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가장 규모가 큰 보험회사이며 자본금 27억2천7백만원。濟東興産(대표 金容廷)은 목축업과 광업을 주종사업으로 하고있으며 제주도 한라산에 4백30만평 규모의 목장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금11억3천6백만원。韓佛綜合金融(대표 李海明)은 韓·佛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납입 자본금 30억원。靜石企業(대표 金一煥)은 KAL빌딩 관리회사로 자본금4억8천만원。이밖에도 학교법인 仁荷學園과 靜石學園이 있다.

이처럼 방대한 기업그룹을 일으킨 主役 趙重勳은 어떻게해서 財城을 쌓는 행운을 잡았을까?

1920년2월11일 서울西大門區渼芹洞에서 부친 趙命熙와 모친 太씨 사이의 8남매중 둘째아들로 태어난 趙重勳은 서울 미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휘문고보에 입학했으나 부친의 사업실패로 학교를 중퇴하는 쓰라림을 맛본다. 15세소년 重勳은 국비로 공부할수 있는 鎭海해원양성소(海洋大學전신) 기관과에 입학하여 17세에 우수한 성적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고、日本 고오베에 있는 藤永田조선회사에 견습생으로 취직했다. 엔지니어로 사회에 첫출발한 趙重勳은 낮에는 조선소에서 기술을 익히고 밤에는 문학과 기술서적을 탐독하면서 부지런한 일과를 보내다가 20세가 되던 해에는 2등기관사자격증을 얻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연소 기관사가된 조중훈은 배를 타고 天津·上海·홍콩등지의 항구를 돌면서 사업가로서의 장래를 꿈꾸기도 했다. 술과 담배、그리고 낭비를 멀리한 채 성실한 기관사생활을 해온 그는 42년 조선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했다.

독자적인 사업경영을 위해 귀국한 그는 보링기계1대를 구입하여 엔진재생공장을 차렸다。이때 나이23세。그러나 이 사업은 1년만에 문을 닫아야만 하는 비운을 맛보게 된다.

이연공업사라는 상호의 이 회사는 43년8월 조선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흡수됐다。실의의 나날을 보내던 그는 45년11월1일 仁川에서 트럭1대로 운송회사를 발족시켰으니 오늘의 한진그룹의 모체가 된 韓進商社가 탄생된것이다.

자동차운송업을 새 사업으로 선택한 趙重勳은 화물선의 짐들을 운반하는 사업도 유망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헐값의 배와 트럭등을 매입하여 직접 수리하는등 장비를 늘려나갔다。사업은 착실하게 발전하여 50년에는 트럭30대、운반선 10척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육·해 운송사업으로 착실하게 기반을 닦아온 韓進商社는 55년부터 美軍을 상대로한 용역군납업을 시작했다。이 해야말로 韓進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되고 말았다。이 당시 美軍들은 한국업체가 영세하고 신용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56년11월 趙重勳은 美8軍 군수참모부장실에서 군수물자 수송계약을 체결했다。계약규모는 7만달러。용역계약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60년에는 2백만달러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조중훈은 성실과 신용으로 일관하면서 미군장교들을 친구로 만드는데도 신경을 썼다。그가 자택으로 초청한 美軍장교만도 5천명에 달했으며 이같은 미군들과의 친교는 후일 越南진출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61년에는 미군 버스 80대를 염가、후불조건으로 불하받아 서울—仁川간을 운항하는등 사업은 번창하기만 했다。

미군 용역사업으로 행운의 카드를 잡은 趙重勳에게는 財閥의 문턱을 넘어설수 있는 제2의 행운이 越南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연간 2백50억달러의 전쟁비용이 쏟아지고 있는 월남전선에서 용역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한 趙重勳은 65년 여름 펜터건을 방문、미국방성 고위장성들과 접촉하면서 일남전쟁에서의 용역계약체결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趙사장은 1개월동안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3백만달러를 예탁금으로 내놓고 3개월내에 모든 장비를 갖춘다는 계약을 해내는데 성공했다。이때 로비활동에는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동생 趙重建이 형을 도와 맹활약했다。

66년3월10일은 趙重勳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이날 하오3시 주월미군 부사령관실에서 월남진출계약서에 정식으로서명한것이다。당시 용역규모는 7백90만달러。이 전쟁에서 5년동안 용역업을 통해 韓進은 1억5천만달러를 벌어들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越南戰爭에서 용역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韓進은 일약 재벌로 성장했고 이 자금과 경험을 토대로 KNA를 인수하여 오늘의 KAL이라는 국제적인 민간항공회사를 탄생시킨것이다.

우리나라 財閥에는 50년대의 戰災부흥경기를 탄 기존재벌들과 60년대 수출경기와 월남 경기、70년대의 해외건설、중화학 경기붐을 탄 새 재벌들이 있다.

시대감각에 뛰어난 趙重勳은 월남전쟁 경기를 탄 주역으로서 이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총책임지고 있는 대표선수가 된것이다.

〈李晶鎬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일본스테이크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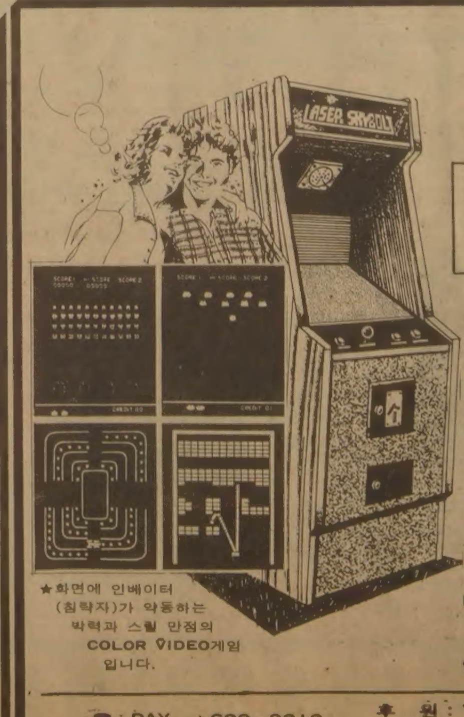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
11 : 45AM～MIDNIGHT
점심스페샬
(— 2 : 30PM까지)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IN A CLASS BY ITSELF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M & J INTERNATIONAL
IMPORTER & EXPORTER & DISTRIBUTER, VIDEO GAME & PIN BALL WHOLESALE
LEASE RENT



★화면에 인베이터(침략자)가 약동하는 박력과 스릴 만점의 COLOR VIDEO게임 입니다.

취급품목 :
SCRAMBLE, DONKY KONG, CRUSH ROLLER, SPACE PANIC, CRAZY CLIMBER, HUNGRY MAN외 New 50ITEMS

"3개월이면 투자액을 건질 수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본사는 미국 아폴로우주계획에 의해 고도로 발달된 전자기술의 산물인 I.C.(직접회로)와 DIGITAL(디지탈)기술로 T.V. 화면을 이용한 새로운 발상의 과학적인 T.V. 오락기구를 개발하고 이곳 캐나다에도 수출을 단행, 신뢰받는 기계, 철저한 아프터 서비스로 여러분의 가게나 음식점등 새로운 비지니스로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읍니다. 또한 이 기계는 마이크로 컴퓨터로 엄격한 관리하에 생산되였기 때문에 정확하며 간단한 조작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도꾜」를 중심으로 약12만대가 보급되고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 YU JIN TRADES CORPORATIN —

M & J INTERNATIONAL
1230 SHEPPARD AVE. W.
#15, DOWNSVIEW, ONT. M3K 1Z9
☎ : 630－0313　대 표 : 양 은 택

☎ : DAY　: 630－0313
NIGHT : 429－1057

후 원 : YU JIN TRADES CORPORATION (KOREA)
G. G. I (CORPORATION(JAPAN)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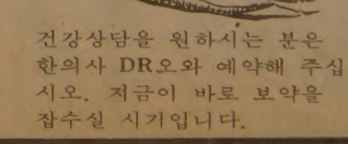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燕山主의 魅力 〈8〉

한국의 戀人들

慈情無限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까만 연산은 매우 자상한 아버지였으며 자녀에게 깊디 깊은 애정을 쏟았었다.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분주한 통치자인 임금이면서 자녀를 뜨거운 손길로 어루만졌고,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이 명군으로 알려진 성종보다 아버지의 자격이 한결 훌륭했기에 그가 매력있는 연인으로서 돋보이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好色한 임금이었으나 子女 여럿두지않고
偏愛하는법없이 골고루사랑…反對무릅쓰고 情 베풀어

우리나라 역사상 연산만큼 음란한 임금이 또 있을까? 그러나 여색(女色)을 가장 탐한 임금치고는 자식을 여럿 낳지 않았다. 조선왕조 역대 왕의 자녀숫자를 살펴보면 태조는 8남5녀를 두었고(74歲卒), 2대 정종은 15남8녀(63세), 3대 태종이 가장 많은 12남17녀(56세), 4대 세종은 54세에 사망했는데 18남4녀, 39세에 병사한 문종은 1남2녀를 두었으며 17세에 사사된 6대 단종은 자녀를 낳지 못한 것같다. 7대 세조는 4남1녀(52세)이고 스무살에 사망한 예종은 2남1녀를 낳았는가 하면, 38세에 요절한 9대 성종은 16남12녀를 남겼다(그런데 옛날에는 의술이 치졸하여 한이레를 지내기 전에 죽는 아이가 많았으므로 실제출산 자녀수는 위의 기록보다 많았을 것이다). 연산은 이들보다 훨씬 적은 4남2녀를 두었다.

즉 신(愼)왕비에게서 세자 황(𤦣)을 비롯한 아들 둘과 딸 하나, 그리고 후궁에게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연산은 1502년 9월 15일에 맏아들 황을 왕세자로 책봉 했는데 책봉을 반포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원자(元子) 황은 자질이 온화 하고 도량이 원대하며 어릴 때부터 기상이 뛰어나 이미 성인(成人)의 도량이 있었고 자라서는 훌륭한 덕망으로써 진실로 임금의 인덕을 갖추었다. 마침내 황을 왕세자로 책봉 하고 감국무군(監國撫軍)의 권한을 맡겨서 천지의 소망에 보답한다.』

그런데 세자 황은 연산의 말대로 왕세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사관(史官)의 평도 그렇다. 「세자 황은 성품이 침중하고 굳세며 엄숙하였다. 왕이 경회루에 거둥하여 흥청(妓生)과 더불어 잔치하며 주악(奏樂)하다가 세자를 불러 『내가 죽은 뒤에 네가 이들을 잘 돌보겠느냐?』하였는데 세자는 대답을 않고 침묵을 지켰다」〈燕山君日記卷58·7月條〉

이처럼 왕세자가 훌륭한 자질을 갖추게 된 것은 아버지인 연산의 자상한 보살핌과 애정때문이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왕세자도 중국의 황태자와 같은 위용을 갖추게 하려고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대신들에게, 황태자의 차림과 황실예절을 자주 물었다. 연산은 또 세자를 볼 때마다 학업에 전념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사람을 보내 세자가 학업에 전념하는지 살피는등 세자 양육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그리고 세자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다는 서연관(書筵官)의 보고에 접하자 세자를 가르치던 빈객(賓客)을 국문하도록 조치했다. 연산이 세자 시절에 글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고 성종이 왕세자를 불러다가 『생각해 보라. 네가 어떤 몸이냐? 어찌 다른왕자들과 같이 노는 데만 힘을 쓰고 학문에는 뜻이 없어 이같이 어리석고 어두우냐?』고 나무라던 자녀교육방법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연산이 자녀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던 사실은, 병약한 원자(元子·世子)를 피병(避病)하기 위하여 월산대군(月山大君·成宗의 兄)집에 맡겼었는데 원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많은 물품을 하사한 예로 충분히 입증된다. 월산대군 집에 하사한 물품은 수없이 많은데, 1500년 10월 21일에 내린 것만 하더라도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2백50필, 정주(鼎紬)50필, 수주(水紬) 30필, 쌀 1백석, 참기름 3석, 꿀 2석, 호초 1석이나 되었다.

또 원자의 유부(乳父·趙璜)에게, 많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벼슬을 내렸다.

자녀에 대한 애정이 성종과 달리 편애하지 않았기에 연산의 매력을 더해준다.

둘째 아들 인(仁·昌寧大君)이 처음엔 김감(金勘)의 집에서 자랐는데 임사홍(任士洪)의 집으로 옮겼다. 피병때문이었다. 인의 병이 위태한 지경이었다가 임사홍의 집으로 옮긴 뒤 나았는데 연산은 한없이 기뻐하고, 이 「한없는 기쁨」을 나타내려고 임사홍은 물론, 의원들에게 푸짐한 보너스를 내렸다. 또, 왕자를 집에서 양육한 정미수(鄭眉壽)에게도 전토와 노비를 주었으며 특진시켰다.

딸 휘순공주(徽順公主)를 끔찍이 사랑하여 공주를 출가시키면서 벼를 8천석이나 내리고 전례없이 새집을 지어주고, 지은 새집 근처가 궁벽하다는 이유로 공주가 원하는만큼 민가를 헐어재라도 넓혀 주라 하였다.

집을 지을 때는 공사가 지체되거나 부실하면 죄를 주겠다고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에게 신신당부하기도 하였다.

공주가 출가할때는 약간의 물품만 하사해야지 집까지 지어준 예가 없다는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지어주면서 구문경(具文璟)에게 하가(下嫁)시킨 연산은 공주의 유모의 남편에게까지 특전을 베풀었다. 유모의 남편인 이팽동(李彭同)은 장원서(掌苑署)의 종이었지만 딸을 끔찍이 사랑한 연산 덕을 입어 양민이 됨과 동시에 내수사별좌(內需司別坐)가 되었다.

몇트럭분의 혼수외에 집과 자동차까지 사주고 지참금을 몇천만원이나 준 재벌이 근래에 있었다니까 임금이 이만한 보너스를 주었대서 별난 사랑을 들먹이는것이 우습지 않느냐는 독자도 있겠지만 당시 왕실의 관행으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왕이라 하더라도 관행을 어길 수 없었고, 대신이 목숨을 내걸고 반대했으며, 왕은 만백성의 귀감인지라 근면·검소에 솔선수범해야 하므로 사물(私物)하나라도 사사로이 처분하기 어려웠었으니까.

그렇지만 연산이 이처럼 자녀에게 쏟은 뜨거운 애정도 민비(閔妃)에게 미치지 못했다.

고종(高宗)의 황후인 민비는 5남매를 두었으나 모두 일찍 잃고 순종(純宗) 하나만 양육했는데, 순종의 명을 빌기 위하여 매일 치성을 드리고 전국의 명산대찰(名山大刹)에서마다 불공을 드렸다니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쌀 몇만석, 피륙 몇 만필이었다 한다.

순종이 아홉살때 혼례를 치를 때는 역대 왕실혼례중에서 가장 호화로와 비단과 그릇을 모두 중국(淸)에서 가져오고 이불을 5백채나 장만했다고 전한다.

그렇다고해서 고종과 민비가 연산부부를 능가하지 못한다. 연산은 비록 왕으로선 실패자지만 어질고 착한 아내를 두었으며 그 자신이 섬세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였던데다가 똑똑한 자녀를 두었었으니까. 이와같이 단란한 가정이 중종반정으로 풍지박산되었다.

特輯·한국歌謠 百年史

(제5면에서 계속)

이 나라 최초의 新劇단체인 土月會가 여배우를 구하러 기생村, 심지어 유곽까지 뒤지며 여배우를 물색했지만 娼妓들까지 『비록 팔자가 기구해서 이짓을 하지만 광대패에까지야 낄수 있느냐』면서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던 것도 이 당시였다.

따라서 레코드사들이 힘들여 발굴해 낸 여가수는 기생출신이 대부분이었다.

鮮于一扇, 王壽福, 왕초선, 李銀波, 李花子, 金福姬, 金雲山 등이 모두 기생출신 가수였다.

이중 「능수버들」「꽃을잡고」로 인기가 높았던 평양名妓 鮮于一扇이 부른 朝鮮八景(邢奭基작곡)은 아름다운 조국을 찬양하면서도 亡國恨의 설움이 담긴 구성진 노래였다.

『에ー 金剛山 일만이천봉마다 기암이요 漢拏山 높아높아 俗世를 떠났구나 에헤야 좋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좋다, 명승에 이 강산아, 자랑이로구나』

역시 기생 출신으로 OK레코드사를 통해 「어머님前上書」를 발표했던 李花子는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일약 가요계의 여왕이 됐다.

색정이 넘치는 용모와 목소리를 지녔던 李花子는 그뒤에도 「꼴망태목동」「초립동」「花柳春夢」으로 인기를 끌면서 기생생활도 계속했는데 끝내는 술에 젖고 사랑에 실패하는 바람에 아편중독이 돼 비극적인 일생을 마쳤다.

막간가수 출신의 레코드취입활동도 활발했다. 李애리수는 「고요한 長安」을 불렀고 姜石燕은 「강남제비」를 불러 히트했다.

그중에서도 蔡奎燁은 「술이냐 눈물이냐」「수풍에 돛을 달고」「언덕을 넘어서」를 잇따라 불러서 저력을 보였고 姜弘植이 부른 「처녀총각」(姜弘植작사 金준영작곡)은 10만장 이상이 팔려 당시로서는 최고 판매기록을 세웠다.

◇李蘭影(왼쪽서 네번째), 張世貞(왼쪽서 다섯번째)이 주축이 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보컬「저고리 시스터즈」와 金貞九씨의 합동공연。

가수겸 작곡가로 특이한 하이·톤과 다이내믹한 목소리를 지닌 金龍煥은, 「안개낀 섬」「부령 청진」을 히트시키면서 「아리랑」의 永鎭역도 곧잘 해냈던 명배우 이기도 했다.

이 무렵 콜롬비아 레코드社 주최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데뷔한 高福壽는 「他鄕살이」로 톱가수 자리를 확보한 실력파였다.

이처럼 각광받던 가수들의 인기랭킹은 당시 잡지 三千里가 실시했던 인기투표에서 완연히 나타났다.

1위는 蔡奎燁, 2위 金龍煥, 3위 崔南鏞, 4위 高福壽였다.

엘레지의 女王 李蘭影이 등장한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항구마다 서려 있는 애절한 사연을 담은 「木浦의 눈물」(金陵人작사 孫牧人 작곡)이 李蘭影의 애잔한 목소리에 실려 전국에 퍼지자 그에 대한 인기는 삽시간에 폭발됐다.

「木浦의 눈물」이 한창 유행하던 무렵에, 뒷날 李蘭影과 결합되기도 했던 南仁樹가 등장했다.

南仁樹가 데뷔한것은 시에론레코드를 통해서였고 데뷔곡은 「哀愁의 小夜曲」(朴是春작곡)이었고 첫곡부터 대히트기록을 세웠다.

보기 드문 美聲을 지닌 南仁樹는 그뒤에도 朴是春과 콤비를 이뤄 「꼬집힌 풋사랑」「감격시대」등 해방전만 해도 8백여곡을 불렀고 해방후에도 「가거라 38線」, 「달도 하나 해도하나」등 2백여곡을 취입, 30여년간에 걸쳐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의 발표곡중 6·25사변때 발표한 「離別의 釜山정거장」은 아직까지도 즐겨 부르는 유행가중의 유행가ー.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그때마다의 시대상을 반영해주듯 노래하던 南仁樹는 62년 6월20일 45세의 젊은나이로 화려한 일생의 막을 닫았다.

■인기가수 金貞九

南仁樹와 비슷한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나 인기를 끌었던 가수가 오늘날 「눈물젖은 두만강」으로 문화훈장까지 탔던 金貞九씨. 작곡가겸 가수 金龍煥의 동생이기도 한 金貞九는 2차대전의 풍운이 감돌던 시기에 「港口의 선술집」으로 데뷔, 이어 만요풍의 「王서방 戀書」, 「총각진정서」, 「코리안 맘보」등으로 나라잃은 동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밖에 스타일을 바꿔 발표한 트로트곡 「눈물젖은 두만강」은 日帝 36년을 통해 민족의 슬픔을 그대로 반영한 노래로 아직까지 우리의 가슴을 짜릿하게 하고있다.

이처럼 레코드 취입을 통해 인기를 누리던 가수가있는 반면 무대가수들도 무시할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 부류의 가수중 宋達協은 중성에 가까운 특이한 목소리로 무대를 휩쓸었다.

그의 취입곡 「야루강 천리길」「처녀일기」도 꽤 愛唱되었던 곡이었다.

이때는 눈물의 여왕으로 불리던 全玉과 배우 石金星도 노래를 부를 정도로 연예인의 구분이 애매했던 시절이었다.

申카나리아 역시 초창기에는 코미디언으로 출발했던 연예인. 16세때부터 무대에서 코미디도 하고 노래도 불렀던 申카나리아는 朝鮮藝術座, 新舞臺등을 전전하다가 1936년 「때꼭새」, 「강남제비」를 취입하면서 레코드 가수로 전향해 오래도록 인기를 누렸다.

불후의 히트곡 「홍도야 우지마라」에는 색다른 에피소드가 따른다.

色情가수 李花子 妓生 겸업

이 노래는 新派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영화로 찍었을 때 주제가로 金英椿이 취입했던 작품. 그런데 영화화 되기 전, 연극으로 크게 히트했던 「사랑에…」는 영화에선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대신 주제가 「홍도야…」만은 널리 유행돼 요즘도 선술집 젓가락 장단과 함께 흘러내려와 아련한 옛날에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 주고있다.

이처럼 황금기를 누리던 당시 가요계에서 작곡가와 가수로 콤비를 이루던 사람은 초기의 全壽麟—李애리수를 비롯, 朴是春—南仁樹, 李在鎬—白年雪이었다.

그중 白年雪(본명 李昌民)은 레코드街 주변을 방황하던 중 流浪劇團을 취입하면서 스타덤에 올라섰다.

이어 발표한 「나그네 설움」은 레코드가 10만장이나 팔린 대히트곡이었다.

「오늘도 걷는다만은 정처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이 시절은 특히 애절한 노래가 잘 팔리던 시절 이었다. 슬픈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목이 터져라 그 노래를 따라 불러 때로는 노래인지 울음인지 구별할수 없었다.

이럴 때에 白年雪은 「두견화사랑」, 「고향설」, 「番地없는 酒幕」, 「복지만리」를 연속 히트시켰다.

이 무렵인 1940년 전후는 가요풍물의 전성시대였다.

노래선전을 겸해 레코드사에서 경쟁적으로 벌였던 가요콩쿠르는 특히 젊은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특히 북쪽지방에서 열린 가요콩쿠르에선 순진했던 아가씨들이 몰려 나와 저고리가 터지고 옷고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노래를 부른뒤 떨어지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1938년 조선일보사 金泉支局이 주최한 가요 콩쿠르에는 멀리 함경도나 吉州, 明川 등지에서부터 남으로 濟州에 이르기까지 1천7백여명이 나와 사흘동안 대회가 진행될 정도였다.

여기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秦芳男(본명 朴昌吾)이었다. 秦芳男은 「不孝子는 웁니다」를 太平洋 레코드社에서 취입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오실 어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치며 통곡해도 다시는 못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자식은 생전에 지은죄를 엎드려 빕니다」

이노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크게 히트했다. 이어 발표한 「꽃마차」, 「잘있거라 港口야」, 「고향만리」「사랑만리」의 연이은 히트로 秦芳男은 톱가수가 되었다.

훗날 그는 半夜月이란 이름의 작사가로 전향했다. 그의 대표작은 「넘두리 20年」, 「꽃따러 가세」, 「울고넘는 박달재」, 「斷腸의 미아리」등으로 작품이 3천곡을 넘고있다.

이무렵 서울淸進洞 어느여염집에선 소녀의 앳되고 고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와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했다.

그 행인이 빅터레코드사 문예부 직원이었다. 그의 배려로 가수로 발탁된 앳된 목소리의 주인공이 당시 17세였던 黃琴心이었다.

黃琴心의 데뷔곡은 「알뜰한 당신」. 구성진 곳소리로 뭇 남성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黃琴心은 그후 高福壽와 결혼한 뒤에도 꾸준히 인기를 끌어오던 매혹의 여가수였다.

같은 시기에 JODK(京城방송국)합창단출신으로 桂壽男과 「國境의 부두」, 「아들의 하소」를 불렀던 高雲峰이 등장했다.

이 무렵에는 가수가 되는 것이 신데렐라의 동화처럼 여겨진것이었다. 이런 풍토속에서 平壤의 和信商會 점원이었던 張世貞이 OK레코드社의 李哲에게 픽업되어 「連絡船은 떠난다」, 「驛馬車」, 「잘있거라 단발령」, 「港口의 無名草」등을 히트시키면서 인기가수로 부상했다.

특히 「연락선은 떠난다」는 關釜연락선에 맺힌 민족의 恨과 함께 가슴을 쳤다.

41년께 「연락선은 떠난다」「망향초 사랑」人氣
黃琴心의 데뷔곡「알뜰한 당신」 뭇남성 魅了

밤 배에 사랑하던 임을 보내고 뜨거운 눈물을 적시며 노래 부르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는 노래였다. 釜山항 바닷물에 슬픈 눈물을 뿌리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이런 아픔, 저런 슬픔을 맛보았겠는가….

張世貞이 한창 이름을 날리던 1941년 太平레코드社 주최로 열렸던 전국가요콩쿠르를통해 또 한사람의 여가수가 탄생했다. 상당한 미모를 갖춘 白蘭兒(본명 吳金淑)였다. 白蘭兒는 「망향초사랑」, 「갈매기 쌍쌍」, 「아리랑 낭랑」, 「織女星」, 「찔레꽃」등을 연달아 불러 일본·만주·남지나등 각처를 순회, 많은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 때에는 蔡奎燁도 건재했고 太平의 간판가수였던 崔南鏞도 맹활약을 하고 있었다.

『落花三千』의 노래와, 「절연편지」의 羅星麗, 「바다의情熱」의 朴光旭, 金鮮英, 崔炳浩등이 선두그룹을 달렸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일은 淸津 가요콩쿠르에서 1등으로 뽑힌 李寅權이 「얄궂은 運命」을 히트시킴으로써 침체됐던 빅터 레코드사를 재기 시켰던 것이다.

한편 黃琴心과 같은 시기에 출발했던 朴丹馬는 「나는 열일곱살이에요」로 젊은 팬들을 설레게했다.

그런 가수들이 기라성처럼 군림했던때 가수들의 분포도는 다음과 같았다.

빅터레코드=李애리수, 黃琴心, 朴丹馬, 李圭南, 콜롬비아=蔡弘植, 金英椿, 南一燕, 蔡奎燁, 李海照, OK레코드=南仁樹, 高福壽, 金貞九, 李花子, 李蘭影, 張世貞, 宋達協, 太平레코드=白年雪, 秦芳男, 崔南鏞, 白蘭兒, 朴香林, 高雲峰 등이었다.

또 이무렵 활약하던 작곡가는 朴是春, 全壽麟, 李在鎬, 孫牧人, 金教聲, 李時雨, 李鳳龍, 金龍煥, 文湖月, 金駿榮, 南藝春등이었고 작사가는 李瑞求, 異河潤, 曺명암, 朴永鎬, 千亞士, 金銀河, 金英一, 李扶風, 姜史浪, 高麗燮, 劉達順 등이었다.

朴丹馬의 「나는 열일곱에요」 長安팬 사로잡고
當時 南仁壽·高福壽·張世貞등 가수는 偶像

■레코드 선전시대로

초창기의 우리나라 레코드 기업규모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레코드가 나오면 시계점이나 모자점등에 위탁해서 판매하곤 했었다.

그러나 실력파 歌手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히트곡이 속출하자 레코드 가게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레코드 판매방법도 대규모적이고 고도로 발달된 PR방식을 곁들였다.

새 가요가 나올때면 레코드 상점엔 아치가 서고 수천장의 歌詞紙가 점포에 쌓인다. 행인들은 그 가사지를 한장씩 들고 가게앞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이른바 街頭合唱을 벌인다. 그 진거리 합창 인파가 너무 많아 순사가 출동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레코드사에서는 또 新曲이 나올때마다 新譜를 발간하고 신문잡지에 가수의 프로마이드와 함께 선전광고를 실었다. 하늘에는 애드벌룬을 띄우는가 하면 비행기로 광고지를 뿌린 일도 있고 창경원의 봄벚꽃놀이때면 야외무대공연과 함께 광고지와 신곡의 가사지가 꽃잎처럼 나부꼈다.

당시에는 레코드 가게에서 고객에 대한 환대도 극진했다.—

레코드상점앞을 지나던 행인이 상점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처녀가 시원한 차를 내놓으며 따뜻한 차를 대접하곤했다.

차를 마시고 노래를 다 들고난뒤 「내일 꼭 사러 오겠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라도 처녀는 얼굴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었다.

가요가 한창 황금기를 누릴때는 가수에 대한 보수도 대단했다.

최고급 양복 한벌이 40원, 이었을 때 인기가수는 입사 축하금 3천원에 전속료 2천원, 월급 3백50원을 받았을 정도였다.

이런 호황을 누리던 가요계의 일로 樂劇團의 활동을 빼놓을수가 없다.

연극과 노래, 코미디 등을 짬뽕으로 엮어낸 악극단 공연중에서 특히 눈길을 모은 것은 바라이어티 쇼 스타일의 幕間物이었다.

이 막간물에는 각 레코드社가 자기회사의 가수와 노래를 선전하기 위해 자체의 전속악단과 전속가수를 내세우는 일이 잦았다. 세칭 舞臺歌手가 이래서 탄생했는데 무대가수 출신의 가수로는 黃貞子, 朴玉草, 沈蓮玉, 金白姬, 王淑浪, 柳貞姬, 玄仁, 金龍大, 南博一, 太星湖 등이 있다.

이들을 앞세운 악극단 중 半島歌劇團은 주로 오페레타를 무대에 올렸고 콜롬비아의 羅美羅樂劇團은 오리지널 가극을 상연해서 악극을 나렸다.

이때 유명했던 보컬 그룹으로 아리랑 보시즈와 저고리 시스터즈가 있었다.

아리랑보이즈는 악기도 다루고 노래와 대사를 섞어서 연기한 근래 비틀즈의 선구였고, 저고리·시스터즈는 李蘭影, 張世貞 등이 새몽저고리를 입고 나와 환호를 받던 여자 보컬그룹의 효시였다.

이들 못지않은 인기를 얻던 金貞九는 日本공연때 볼모로 끌려갔던 英親王 李垠公앞에 나가 「三千宮女」를 불러 英親王을 비롯 모두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기도했다.

가요인의 활동은 이처럼 대단했지만 일제 35년동안 가요인이 받았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荒城옛터」가 연차음 유행했을때 작곡가 全壽麟과 작사가 王平은 종로서 유치장에서 밤을 새운 일도있고, 조선악극단의 東京공연때는 가수 黃南普의 북가인 僧舞에서 북가운데 그려진 태극기가 말썽이 돼 공연중지와 함께 책임자가 구속된 적도 있었다.

악극단의 대본은 사전검열을 받아야했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막을 올리지 못했다.

大東亞전쟁이 시작된 41년 12월이후에는 「모든 공연물은 국어(일본어)상용」이라는 원칙아래 간섭이 특히 심했다.

따라서 高福壽가 일본공연을 할때는 「풍년가」의 가사 「풍년이 왔네」를 「호넨가(풍년이란 뜻) 왔네」로 불러 웃지못할 난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해외공연 당시의 연예인들。李蘭影(前左), 金貞九(後左2번째), 朴是春씨(前右)의 모습이 보인다。

◇崔南鏞

◇金英椿

◇가수 李花子

◇작곡가 金龍煥

(다음주에 계속)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生活英語

담당 민병철

【美 트루먼大 영어연구원장】

LUNCH IS ON ME.

시카고 영어연구원의 강의스케줄은 중간에 약10분간의 휴식시간(break)이 있다. 하루는 이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교육한 담당 미국인 교수에게 coffee를 사드리려고 자동판매기(Vending machine) 앞까지 갔으나 마침 동전이 없었다. 낭패한 표정을 하고 있자 그 교수가 Don't worry. This coffee is on me. 라고 하며 거꾸로 커피를 사주더라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물어왔었다.

이때 전치사 on의 용법은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결국은「이 커피는 내가 사겠다」라고 했던 것이다.

예컨대「이술은 내가 사겠다」This drink is on me.「점심은 내가 내겠다」Lunch is on me. 라고 하면된다.

또한「이번에는 내가 대접하겠다」라고 하고싶은 경우에는 Let me treat you this time. 이라고 할 수 있다.

A : Would you like to have lunch at a new restaurant I heard about?
B : I'm sorry, all I can afford today is a Big Mac.
A : Come on. Lunch is on me.
B : I couldn't do that.
A : Don't be silly. I insist.
B : Well, if you insist. Thank you.
A : 새로생긴 식당에서 점심이나 할까요?
B : 미안합니다만 오늘 난 빅맥밖에 먹을 형편이 안되는데요.
A : 이러오세요. 점심은 내가사죠.
B : 그럴수는 없어요.
A : 그러지 마세요. 어서갑시다.
B : 정그러신다면 하는수 없죠. 감사합니다.

※afford : ~의 여유가 있다. I can't afford to buy a new car. 새차를 살만한 형편이 안된다. Don't be silly. : 바보같은 소리 말라.
insist : 우기다. 주장하다.
He insists on that point. : 그는 그점을 강조한다.
Big Mac「맥다날 햄버거」의 일종.

LET'S KEEP IN TOUCH.

함께 Truman College에 있던 친구가 L. A.의 Santa Monica로 이사를 가면서 한 말이다. Let's keep in touch. in touch란「~와 접촉하다」는 숙어이며,「서로 연락하고지내자」는 뜻으로 내게말한것이다.

전근을가는 친구에게 Let's keep in touch. 하면될것이고, 한국에서라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국인 친구에게「계속연락하며지내자」고 Let's keep in touch. 하면 훌륭한 표현이 될것이다.

Keep me informed. 라는 말도 있다. Let's keep in touch. 가 허물없는 친구끼리에 사용될수 있는 말이라면, Keep me informed. 의 문형은 형식을 갖춘 formal한 표현이다.

Keep me informed. 와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Keep me posted. 도 같은 말이다. Keep a person posted. 란「계속해서 근황을알리다」는 숙어로서, 유학가는 아들에게 Keep me posted.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면,「계속해서 연락하라」고 말한것일 것이다. 위에 나온 Santa Monica의 발음이다. 비음인 N다음에 T나 D가 왔을때 이 T, D는 발음이 나지않는 수가 왕왕있다. Santa의 발음중에서 t가 생략되면 결국은「sænə」,「세너마니카」와같이 발음하고있다.

Sentimental「쎄너메널」, center「쎄너」, accounting「어카우닝」, sandwich「샌위치」도 같은 현상이다.

발음을 전부내지않는것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있고, 또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A : I hear you're moving to Santa Monica.
B : Yes, I found a very good job over there.
A : Well, we'll certainly miss you at Truman College.
B : I'm going to miss you folks, too.
A : Let's keep in touch.
B : O. K. I'll drop you a line as soon as I get there.
A : 쎄나 마니카로 이사가신다고들었읍니다.
B : 네, 거기에 아주 좋은직장을 구했어요.
A : 트루먼대학에 있는 저희들이정말 서운하게 되었는데요.
B : 저도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게될것입니다.
A :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야지요.
B : 그래야지요. 도착하는 대로 몇자 적어보내겠읍니다.

＊miss : 그리워하다. I miss you badly. 당신을 몹시 그리워합니다. folks : 사람들 (허물없는 사이에 사용되는표현). drop a line : 몇줄써 보내다.

본 칼람 담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스물두살의 자서전 ㊼

金洪信 作
崔然石 畫

지난줄거리

부정부패를 만드는 기술자를 [illegible] 부정 [illegible]의 생산방법과 판매루트를 알아냈다. 특수한 수입약품도 알아냈지만 밝히지 않는다. 알만한것을 찌다 캐고 나오는데 외팔이의 일본 [illegible]가 이십여명의 [illegible]들을 데리고 와서 총찬이가 있는 지하실에 불을 질러 [illegible]이려고 한다. 총찬은 필사적 탈출을 시도해서 무사히 그 속에서 빠져 나온다.

웬만한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논문제출이었다. 나는 대충 마무리를 해놓고 주임교수를 찾아갔다. 그 크로마뇽인처럼 생겨먹은 주임교수는 내게 진 빚이 있어서 언제나 따스했다.

「[illegible] 재미구만, 졸업하면 뭘 할라나?」

주임교수가 코피를 권하며 물었다.

「대학원까지 아예 가서 선생질이나 할까요?」

내가 의뭉스럽게 대답했다.

「그게 뭐 좋다구 그래. 자네같은 사람은 큰일을 해야지.」

골치 아픈 사내를 더 두고 볼수 없다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글쎄요, 이 학교 이사장이나 돼볼까 생각중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되면 총장이 되겠죠.」

「헛소리 말고….」

주임교수는 손을 흔들었다. 내가 행여나 이사장이 됐다가는 교수들 모가지가 제대로 붙어있기 어렵다는걸 알기 때문이었다.

「취직해얄 거 아닌가.」

「그래야죠.」

「어디 알아봤나?」

「아뇨. 뭐 어떻게 되겠죠.」

「다른 애들은 지금 정신 못차리고 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나는 이러고 있지만.」

「똥통학교에 누가 추천해달라고 오겠어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그건 선생님 탓이 아니니까요. 이사장이나 교수나 제 배 채우는 데만 눈알 돌리고 있는 판에 학생들 걱정하겠어요. 등록금 꼬박꼬박 잘 내줬으니 고맙다 하고 종이쪼가리 한장 내주면 끝이죠.」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거 아닐세.」

「알았읍니다. 애들 쳐다보니 화가 나서 그래요. 똥통학교 다닌 것도 억울한데 취직 못해서 빌빌 싸는 거 뵈기 싫어서 말예요.」

「자네 앞가림이나 해. 쓸데 없는 걱정말고.」

「저야 뭐, 굶어다 안쓰는 놈이 병신이죠.」

우리는 그런 식의 얘기만 너절하게 늘어놓았다.

「저, 미나 집에 있읍니까?」

「요샌 말잡고 공부한다네. 다 자네 덕이지.」

「제가 뭘…. 오늘 데이트 좀 할까 하는데 괜찮겠읍니까?」

나는 짓궂게 물었다. 주임교수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 보았다.

「자네, 우리 미나 좋아하나?」

「노력할까 생각중입니다.」

「자네 애인 있잖는가?」

「요새 애인 한명뿐인 놈이 어디 있읍니까.」

「예끼, 누굴….」

「그러지 마시고 미나 좀 불러주세요. 오늘 따귀 한대 때리게 될지 모릅니다.」

「호호호….」

주임교수는 한참동안 웃었다. 내말을 농담으로 듣고있는 눈치였다. 설마 따귀를 때리겠느냐는 표정이었다. 좋아하고 만나서 얘기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림없는 얘기였다. 나는 오늘 생각한 김에 미나를 불러내서 다혜가 저렇게 버티는 이유를 캐낼 작정이었다.

「일찍 만나고 일찍 보내게.」

주임교수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세시에 학교 정문으로 나와라.」

주임교수는 마치 당신 자신이 만나는 것처럼 미나와 약속하고는 내게 눈을 껌벅거렸다. 딸내미를 누가 채뜨려 갈까봐 눈에 불을 켜고 악다구니 쓰는 사내들에 비하면 주임교수는 너그러운 편이었다.

따귀를 때리겠다고 공약했지만 다혜는 아직도 한사코 버티고 있었다. 내 응어리는 쉽게 풀어질 것 같지 않았다.

미나를 무작정 학교 뒷산으로 끌고 갔다.

이사장이되면 총장시켜드리죠
"데이트하게 딸 좀 불러주세요"

"너를 몽땅 가지라구…누굴 덤테기 씌우려는거야, 뭐야"
둘다 가지고싶으나 세상은 그런걸 허락하지 않잖아

「오빠, 왜 이래?」

약간 겁먹은 표정이었다. 어찌 보면 다혜보다 나은 미모였다. 미나는 다혜처럼 몸을 사리지 않았다. 다혜에 비하면 내가 훔치기 쉬운 여자였다. 그러나 내 가슴 속의 오기는 다혜를 악착같이 훔칠 생각 뿐이었다.

「다혜 만났었지?」

「그래요.」

「무슨 얘길 했어?」

「오빤 사랑한다고 했어요.」

또렷또렷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대로 말해. 뭐라고 했는지?」

「……」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았다.

「네가 날 잡아먹든 삶아먹든 그건 상관없어. 그러나 거짓말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빨리 말해.」

미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를 매섭게 노려 보았다.

「사실대로만 얘기했어요. 뭐.」

「어떤 사실까지야?」

「오빠하고 입 맞춘 거하고…그리고 하룻밤 오빠하고 잔 거….」

「언제 내가 너랑 잤어?」

「난 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맘을 줬으니까요.」

「마음을 줬으니까 잔 거라…그따위 논리가 어디 있어?」

「난 그래요. 그런 계집애예요. 그날 오빠가 다 죽게 됐을 때 난 오빠 가슴에 안겨서 눈을 감았어요. 오빠는 몰라요. 나도 여자예요. 다혜라는 여자만 여자가 아녜요. 나도 여자란 말예요.」

미나는 흐느끼고 있었다. 따귀라도 한대 올려 붙이려던 마음이 갑자기 녹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 없는 얘길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거야.」

「오빤 몰라요. 내 맘을, 난 여자 아닌 줄 알아요?」

「누가 여자 아니랬어?」

「바보, 오빤 바보.」

미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나는 그런 미나를 왈칵 껴안고 싶었다. 차라리 미나를….

마음 속의 갈등이 자꾸 나를 붙잡고 늘어졌다. 어떻게 할까 망설여졌다. 미나를 훔치고 싶었다. 미나를 훔친 뒤에도 얼마든지 다혜를 훔칠 수 있을것 같았다.

내 가슴 속의 악마란 놈이 나를 휘감고 있었다.

미나는 돌아서서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절절한 애원이 담겨져 있었다.

「나도 여자예요. 나도 여자란 말예요.」

그녀는 웃옷을 벗었다. 탄력 있는 몸매가 보일 것 같았다.

「오빠, 날 다 가져요. 난 오빠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미나는 치마 허리로 손을 가져갔다. 나는 그런 미나의 손을 잡았다.

「야, 이거 누구 덤테기 씌우려는 거야 뭐야? 그냥 있지 못해.」

미나는 내 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옷을 벗으려고 했다.

하나님 맙소사.

나는 미나의 따귀를 힘껏 올려 붙쳤다. 미나는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런다고 사람 잔 빠지는게 아냐. 정신차려. 내 성질 알잖아. 내 맘대로 다혜란 계집애 좋아 좀 해보자. 넌 왜 내 맘 모르냐? 그 계집애보다 네가 더 잘생기고…계네 아버진 국민학교 선생이지만 네 아버진 대학교수야…그 계집앤 옷 안벗으려고 하지만 너는 벗으려고 해. 난 여태 내 성질대로 살아왔어. 성질대로 좀 살자. 나도 날 갖고싶어. 그러나 이놈의 세상은 둘을 모두 가질 수가 없잖아.」

나는 이렇게 지껄이고 있었다. 미나는 벌써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우리는 한참만에 산에서 내려 왔다. 미나는 슬픈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말이 없었다. 나도 별로 할 말이 없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오솔길에는 낙엽이 질펀하게 깔려 있었다.

「오빠.」

미나는 꼿꼿하게 서서 나를 불렀다.

「그럼 마지막 키스해 줘요.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께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 안았다.

그리고 입술을 내밀었다.

정열적인 입술소리가 났다. 나는 그녀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키스란 낱말이 어딘지 장송곡소리처럼 들렸다.

「살아있어야한다. 재미있게 살아도 다 못사는 세상인데…넌 지금부터 시작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까짓거 나같은 후줄근하고 조다같은 사내는 수두룩하게 깔렸다구. 인구의 반은 사내라구. 넌 하필 나같은 등신을 선택했니? 잊어버려. 세상 우습다구. 알았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다혜한테서 전화가 너댓차례 왔었다.」

온주 누나가 이렇게 말하고 다혜네 전화번호가 쓰여진 메모지를 내밀었다. 나는 망설였다. 미나가 그 길로 쫓아가 다혜를 만난 것 같았다. 그래서 다혜가 전화질을 한 것 같았다.

다이얼을 돌렸다. 그냥 참고 이 밤을 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다혜씨 되슈? 나, 총찬이라구 하는 사람올시다.」

「나야, 전화 여러번 했었어.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좀 놀다가 왔지유.」

「나라니까, 다혜.」

「나라니까, 다혜야. 왜 그래?」

「말씀하세요.」

「볼일 있으면 하시라니까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전화를 다 하셨다고요. 대체 저같은 놈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셔서.」

「잘못했어. 그만 해.」

다혜는 내가 반말하지 않는게 어색했던 모양이었다.

「뭘 잘못하셨다고 이러시나요?」

「차암, 내가 오해 했었다니까 그래. 용서 빌테니까 나와.」

「밤도 늦고 해서 나 고꾸라져 주무실라요.」

「그러지마, 응! 잘못했다니까 그래. 지금 나갈께. 공원 그네터로 나갈께. 지금 바로. 가서 얘기 할께.」

나는 못이기는체하고 옷을 주섬주섬 바꿔 입었다.

「이 밤중에 속옷을 갈아입고…안 들어올 작정이구나.」

온주 누나가 방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상스런 눈으로 보지마. 안들어오게 되면 안들어오는 거지 뭐. 누나 혹시 질투하는 거 아냐?」

「얼씨구, 너같은 애는 비릿내가 난다.」

「홀아비는 서캐 잡아가며 혼자 살아도 과부는 몸살나서 혼자 못사는 거래는데.」

「과부도 과부나름이란다.」

「못들어올지 몰라. 누나 잘 나더라도 참아 줘.」

온주 누나는 내 등짝을 후려쳤다.

나는 그런 온주 누나를 번쩍 안아 가볍게 볼에 입을 맞추어 주고 뛰어 나왔다. 누나가 욕지거리하는 소리가 대문까지 들렸다.

하나님. 우리 온주 누나에게 복을 좀 나누어 주세요. 착실한 사내 하나를 점지해 주셔서 우리 착하디 착한 온주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온주 누나에게 짝 하나 맞춰줘요. 싼 전남편 같은 치사한 사내 말고 염라대왕 앞에 가도 똑바로 세바늘 정도만 [illegible] 사내로 말입니다.

세상 우습다구, 재미있게 살아도 다못사는 세상이야
지조없는 입술은 싫어, 상종하고싶으면 소독하고 와

다혜는 그네 위에 앉아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눈매가 부드러웠다. 나는 다혜 옆에 서서 노려보았다.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거야. 아까 미나 만났어. 사실대로 얘기해줬어. 그러나 몽땅 용서하는건 아냐. 나말고 다른 여자하고 입맞추지 않겠다고 맹세한 건 분명히 어겼으니까.」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찬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내가 미나 말만 듣고 오해한건 그 뒤의 일이니까. 찬이가 빌면 나도 빌거야. 우린 서로 잘못했어. 오해는 풀면 되지만 입 맞춘 건 흔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찬이가 먼저 빌어야 돼.」

다혜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니까 언제고 나를 쥐고 흔드는 여자였다. 성질대로 못하고 끌려 다니는 내 신세를 보면 다혜가 보통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난 빌 게 없어. 그 상황에선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물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냐. 그러나 이해하는 거하고 용서하는 거하곤 달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빌랬잖아. 남자가 뭘 그까짓 것 가지고 버텨.」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오늘 마지막 키스도?」

「뭐?」

「놀랠 거 없어. 미나는 솔직한 애야. 미나가 솔직하지 않았으면 아마 내 오해는 안풀어졌을 거야.」

「좋다. 까짓거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다 가지고 안돼.」

「나도 그 이상은 못해.」

「후회하게 될 거야. 나 꽤 괜찮은 계집애라구.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말야. 우리 집 담 밑에 가면 총각들이 하도 들랑거려서 돌이 반질반질해.」

다혜는 능청을 떨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모질게 마음 먹고 나왔지만 다혜 앞에서만은 모질어지지 않았다. 이놈의 가슴패기가 뭐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까짓거, 잘못했다.」

「까짓거는 빼.」

「잘못했다 까짓거.」

「주와 주왔어. 나도 오해한 거랑 욕한거랑 미워한 거 모두모두 잘못했어, 까짓거.」

우리는 부둥켜 안고 웃었다. 공원의 불빛만 아니라면 마구 뒹굴며 웃었을지 모른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대낮에 끼고 놀든지 뒹굴든지 참견않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젊은 애들 궁한 호주머니를 여관 주인에게 털어주는 세상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안돼!」

다혜가 내 팔을 뿌리쳤다. 나는 그런 다혜를 노려보았다.

「다 용서하기로 했잖아. 합의해서 도장 꽉 찍었잖아.」

「그렇게 지조없는 입술하곤 상종하기 싫어.」

「봐줘라. 비누 칠해서 닦고 왔으니까. 과거는 잊자고.」

「정 나하고 상종하고 싶으면 소독하고 와. 저 앞에 약방 있잖아.」

「내 차암, 옥도정기 바르래?」

「옥시풀 있을 거야.」

나는 다혜를 밀어뜨리고 입술을 찾았다. 다혜가 내 팔목을 물었다.

「소독하고 오랬잖아.」

「씨, 좋아 기다려.」

나는 약방으로 뛰어갔다. 옥시풀을 한 병을 사들고 뛰어왔다. 다혜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적만 해선 안돼.」

나는 입안에 넣고 거품을 만들어 두번 뱉었다. 다혜가 나무 숲 속으로 도망갔다.

나는 쫓아가 다혜를 쓰러뜨렸다.

「연속극같다. 도망가다 괜히 여자가 넘어지고 남자가 또 넘어지는….」

나는 다혜의 입술을 덮쳤다. 다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마치 다혜의 혓바닥을 내 흡인력으로 뽑아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굴었다.

「나 오늘 안들어간다고 하고 나왔어. 널 가질거야.」

내가 식식거리며 말했다. 다혜가 눈을 곱게 흘겼다.

나는 다혜의 가슴께에 손을 넣었다. 다혜가 꿈틀거렸지만 내 손가락은 한수 빨랐다.

「아퍼.」

다혜가 돌아누웠다. 나는 계속 끈질기게 그녀의 가슴을 우려어 쥐고 늘어졌다. 정말 오늘 밤은 훔칠 작정이었다.

하나님, 좀 봐줘요. 사람 좀 살고 봅시다.

(다음주에 계속)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 서울로부터의 항공편 송부도중 분실됐던 본국판 한국일보 제 10153호를 이제야 발행합니다. 이 본국판은 10월 29일자에 게재 됐어야 했읍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50개市 都市計劃 全面재검토

5年계획建設부문 五輪대비 내년 最終案

基準地價 84년末까지 告示

大都市 내년 下水道料징수

정부는 88서울올림픽준비와 관광자원개발을 비롯한 국토의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 전국 땅값을 우선 안정시키기로 결정、오는84년까지 全國土에대한 기준지가를 앞당겨 고시키로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86~90년까지 全國土에 대한 기준지가 고시를 끝낼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한 서울·釜山을 비롯한 전국 50개市級도시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내년중에 각도시별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확정시키기로했다.

★관련기사4면

24일 건설부가 발표한 제5차 5개년계획중 건설부문 실천계획에 따르면 88서울올림픽준비시설과 관광자원의 개발을위해 9만8천9백66㎢에달하는 全國土중 현재35·9%인 3만5천5백62㎢ 지역에대해서만 기준지가를 고시했으나 내년중에 44·5%인 4만4천62㎢、83년중 72·8%인 7만2천62㎢로 고시지역을 늘리고 84년말까지는 全國土에대해 기준지가고시를 끝내기로했다.

지역별로는 ▲현재 수도권등 50개市級도시와 주변지역、京畿道일원、濟州道、동남해안공업벨트지역、동해안 지역 (11월중告示예정) 등에 이미 기준지가가 고시돼있으며 ▲내년중에는 忠南北및 全北지역 ▲83년중에는 全南및 慶南지역등에 각각 고시하고 ▲84년중에는 江原道를 비롯한 전지역에 고시할방침이다.

한편 50개市級도시에대한 도시계획의 전면재검토는 오는 11월중에 건설부가 계획수립과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각市道에 시달하고 내년말까지 최종확정토록했으며 이밖에 2백38개도시지역의 도시계획은 83년말까지 재정비 해나가도록 했다.

建設部는 下水道사용료를 받을수있는 근거를 마련키위해 下水道法을 국회에 제안했고 이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서울·釜山등 대도시에서 下水道料가 징수될것이 확실하다.

한편 수도권과 대도시의과밀화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대형사무소의 개설허가제를 실시하고 사업소에 관련된 稅制를 강화、重課稅할 방침이며 대도시공장을 지방에 재배치시킨다는 원칙에따라 서울지역의 不適格공장 3천8백98개소중 1천개소는 半月지역으로、나머지 2천8백98개소는 平澤지역으로 각각 이전시키기로 했다.

5개년 계획기간중 주택은 1백46만호를 건설、주택부족률을 지난80년말 현재의 25·5%에서 오는 86년에는 21·6%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특히 건축법을 개정、단독주택에 여러가구가 함께 살수 있는 시설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한주택에 1개이상의 출입문、수도、부엌、화장실등을 갖출수있도록 허용하여주택임대산업을 장려해 나가기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86년까지 5년동안 추진될 건설부문의 총투자규모를 모두 24조8천4백억원으로 책정했다.

◇86년의 모습

	單位	80	86	增減
○都市化率	%	66·7	72·9	6·2
○住宅供給率	〃	74·5	78·4	3·9
○上水道普及率	〃	55·0	70·0	15·0
1人當給水量	ℓ/日	256	300	44
○下水道普及率	%	6	25	19
○工業用地	㎢	332·3	382·5	50·2
○用水供給	億㎥	161	259	98
댐供給	〃	19	101	82
(多目的댐)	個	4	8	4
○河川改修率	%	30·6	35·1	4·5
○道路鋪裝率	〃	32·4	47·2	14·8
國道鋪裝率	〃	51·9	72·9	21·0
○高速道路	㎞	1,245	1,428	183

部處別로 總定員制 실시

내달初에 대규모人事단행

1백23개行政기관 職制調整案을확정

자의로 增員못해…成果보아 擴大키로

정부는 24일상오 임시국무회의를열고 정부組織整備에따른 경제기획원등 1백23개 중앙행정기관의 조정된 職制案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또 행정기관의 조직및 定員에 관한 通則개정안을 의결, 각 部處별 總定員制를 도입키로 했다.

확정된 새로운직제는 체신부와 원호처를 제외한 1백21개기관의경우 공포한날부터 시행되도록 돼있으며, 시행시기는 11월부터가 될것으로 보여 11월초부터는 새職制에 따라 各部處별로 대규모人事가 단행될것같다.

또 이날 通則개정안이 의결됨에따라 정부는 기구가 再팽창하는것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것인데 개정通則에따라 공무원의 增員을 各部處長이 恣意로 하지못하는 대신 기구의신설 필요가있을 경우 部處별 정원범위안에서 융통성있게 조정할수 있게했다.

지금까지는 본부·소속기관등 기구별로 定員을 정해왔으나 이날 通則개정으로 소속기관을 포함한 部處단위의 전체定員을묶는 근거가 마련된것이다.

정부는 각部處별 총정원제의 실시효과를보아 전체공무원수를 묶는 公務員總定員制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정通則은 2級을 3級직위에, 3급을 2급직위에 補職할수있는 2、3급人事풀제도 도입했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超過정원은 ▲2급이하 4급이상이 4백82명 ▲5급이하가 5백94명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초과정원은 現員이 定員에 一致될때까지 인정되는데 5급이하에서 초과정원이 발생한 현황을 보면 ▲기구의 폐지로 인한 90명 ▲중간감독기구의 조정에따라 3백12명 ▲公團발족으로 인한 46명 ▲기타 감축대상기관서 1백47명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27일의정례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안을 의결할예정이었으나 행정의 공백을 최대한으로 줄이기위해 이날 임시국무회의를열어 확정한것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비롯, 서울특별시등 市道와 시도교육위원회등의 직제는 조직개편작업이 완료되지않아 금주중 이를 마치는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될것으로 알려졌다.

"秋穀값 15·30%引上을"

民正·民韓·국민당 10%線은 生産費에未達

民正·民韓·국민등 주요정당은 국회經科·農水産委연석회의에서 申秉鉉부총리가 밝힌 秋穀收買價의 10%線인상은 生産費증가를 度外視한 너무 낮은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이상으로 인상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民正黨은 정부측에서 제시한 10%引上線은 黨의기대에 未洽하다는 판단에따라 고위 간부들이 정부당국과만나 인상을 촉구할것으로 보인다.

民正黨의 한관계자는 24일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0%수준은 부족하다면서 최소한 15%선이상은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뜻을 정부측에 재차 촉구할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民韓黨과 국민당은 24일상오 각각 성명을발표, 정부의 秋穀收買價 10%線인상 억제방침은 농민의 增産의욕을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上幅확대를 촉구했다.

金珍培民韓黨대변인은 『생계비의 보장은커녕 올해물가상승률의 거의반밖에 되지않는 값으로 수매하겠다는것은 農政을 파탄으로 이끌고 農民의出血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터무니없는 계수의 나열을 그만두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실의에찬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林德圭국민당 부대변인은 『추곡수매가는 적어도 30%선을 인상할것과 수매량역시 농민들이 원하는전량을 가능한수매할것을 촉구한다』고말했다.

常委 秋穀價싸고 徹夜논란

국회는 經科委와 農水産委합동회의를 열고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高建농수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4일 새벽 4시께까지 秋穀收買價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徹夜회의에서 14명의 與野의원들은 秋穀收買價와 收買量을 대폭 上向조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정부측은 收買價10%線인상(가마당5만3백원)과 6백만石 收買원칙을 계속 고수, 논란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郭定鉉、李孝益、金湜、高貴南、吉淇相(이상民正)、吳上鉉、李炯培、閔炳楚、安健一、洪思德、池楨道(이상民韓)、金永光、金鍾河(이상국민)、愼順範의원(無所屬)등은 『추곡가10%선 인상은 生産費에훨씬未達하는수준』이라고 하고 ▲2重穀價制의 폐지시기 ▲糧特赤字의 해소방안 ▲麥買米등 外米도입에 따른문젯점 ▲농민의 增産의욕 고취대책 ▲비료값의 안정책 ▲都·農간의 소득격차해소방안 ▲양곡관리법의 개정방안등을 질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收買價는 작년보다 23% 올리고 收買量도 78년、79년의 수준은되어야 한다 ▲外米를 과잉도입한것이 아닌가 ▲공업편중정책과 低穀價정책으로 인한都·農간 소득격차로 농민의增産의욕을 상실시켰다 ▲농수산부가 책정한 秋穀收買價의 산출근거를 밝히고 糧特赤字를 韓銀차입금으로충당해야한다고 추궁했다.

人造인터페론 감기도特効

제2차 國際專門家회의 폐막

【샌프란시스코24日UPI=聯合】제2차국제인터페론학술회의가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3일간의 회의를 끝내고 폐막됐다.

이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과학자들은 이날 폐막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高純度단백질인 인터페론의 생산을 위한 새로운 유전자 접합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몇몇 유형의 癌들과 심지어 일반감기를 치료하는데 있어서의 인터페론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길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또 인터페론이 인체에 침투해있는 각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종의 단백질로서 모든 인체세포들에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페론抗癌효과 測定실험年內재개

【샌프란시스코23日AP合同】미국의 저명한 유전공학산업체인 제넨테크社가 세계최초로 유전인자분리방식에 의해 단백질면역 인터페론생산에 성공한데이어 제넨테크社와 공동으로 인터페론을 생산하고있는 호프만·라·로시제약회사는 24일 인터페론의 抗癌효과를 측정하기위한 제2단계 실험이 금년말경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美스탠퍼드大學의 산드라·호닝박사는 이날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인터페론전문가 회의에서 박테리아의 유전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개발한 인조인터페론을 16명의 암환자에게 투여、그가운데 7명의 환자에게서 종양이 縮化되는 임상치료효과를 거두는 개가를 올렸다고 밝혔다. ★특집5·6·7·8면

大統領賞에 全南「玄川소동패놀이」

全國民俗경연폐막 全北「立石줄다리기」 總理賞

【仁川=李忠雨기자】제22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금년 첫선을 보인 전남의「玄川 소동패놀이」(사진)가 대통령상(상금 5백만원)을 차지했다.

지난22일부터 24일까지 仁川공설운동장에서 17개 시·도의 19개팀 1천48명이 참가, 열띤 경연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전남麗川郡玄川面에 전승되어 소동패들의 모습을 그린「현천소동패놀이」는 종합최우수로 대통령상에 올랐고 국무총리상 (상금 3백만원)도 역시 금년에 처음 나온 전북金堤郡月村面의「立石줄다리기」에게 돌아갔다.

부문별 우수작품에 주는 공보장관상 (상금 1백만원)은 농악에 충북의「제천두학농악」, 민속극에 서울의「송파산대놀이」, 민속놀이에 충남의「용대기놀이」, 민속무용에 경북의「청단놀음」, 민요에 제주의「집줄놀는 노래」가 각각 받았다.

개인연기상인 仁川직할시장상 (상금 30만원)은 경기「강화시선뱃놀이」의 鄭泰圭씨, 경남「밀양백중놀이」의 河寶鏡씨, 전남「활두계놀이」의 金正淵씨에게 주어졌다.

심사위원 成慶麟씨는『이번대회는 고증과 원형을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회며 대체로 그수준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문예진흥원장상(공로상·상금60만원)=황해의「봉산탈춤」、함남의「북청사자놀음」 ▲예총회장상 (장려상·상금40만원)=강원의「강릉대보름농악」、仁川의「용왕굿」、부산의「동래학춤」.

싱가포르 大統領에 全大統領、當選祝電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싱가포르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나이르 대통령에게 축전을보내『각하의 在任기간중 양국간의 기존우호관계가 더욱발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라지機 1百50臺 印서 購買

【뉴델리24日UPI=聯合】인도는 미국이 파키스탄에 F16전투기를 공급하는데 대항하기위해 프랑스로부터 고성능미라지기 1백50대를 33억달러에 구매할 것이라고 PTI통신이 24일 보도했다. PTI통신은 이날 인도가 무이를내로 프랑스에 미라지2000기의 구매의사를 밝힐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앞서 미라지기제작사인 프랑스의 마르셀·다소社 R·C·발리에르회장은 지난 19일 인도를 방문, 인도정부관리들과 구체적인 상담을벌였었다. 마르셀회장은 이어20일 프랑스로 귀환, 계약을 완료시켰다고 PTI통신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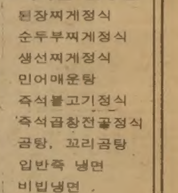
社会漫評

地平線

왕으로 3년이 지나면 長·次官車를 빼고는 관용차가 없어지리라고한다。그때까지는 고급 공무원들이 핸들을 직접 잡아야한다。 이것을 두고 오너·드라이버란 말이 신문에 심심찮았다。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좀이상한말이다。▼오너·드라이버의「오너」는 영어로 所有者、「드라이버」는 運轉者다。그렇다면 핸들을 잡은 고급 공무원을 오너·드라이버라고 하기는 어렵다。그들이 운전하는 차는 나라의 所有지、그들의所有가 아니니까。그래선지 요즘은「손수운전」이란 말이 나와 제법 정착되는것같다。그뜻이 합당할 뿐아니라 外來語를 하나 물리쳤으니 더좋다。▼그런데 이「손수 운전」에는 또 다른 꼬리가 달려 있다。내무부장관이 23일 국회에서 밝힌 대로、「손수 운전」의 교통사고는、「故意的이 아닌」경우、형사처벌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故意的」인교통사고가 얼마나되는지는 알수가 없으나、내무부 방안의 골자는 4주이하의 인명피해는 즉결심판에 돌리고、재산피해는 합의가 없더라도 범칙금만 통고하며、교통단속을 계몽위주로 한다는 것이라고한다。▼이 방안은 고급공무원이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불려 다니는 망신살、전과자가 되는 두려움을 덜어줄게 틀림없다。언젠가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점을 들어「손수운전」을 반대한 공무원이 많았다。이 방안이「손수운전」의 일반화를 돕는다면、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듣기에 두루 좋은 것 뿐이다。▼그러나 정작 하루 10여시간 핸들을 잡아야하는 취업운전자의 경우는 어떤가。그들은 전치 1주의 사고만 내도 5~10만원의 벌금을 낸다。적어도 1주일치 벌이가 넘는돈이다。게다가 1~6개월의 면허정지가 있다。사고를한해 3번 내면 乘務가 금지된다。이렇게 三重처벌을받고、벌이를 잃은 처지에서、내무부의 너그러운 방안을 보면 지위없는 한탄이 절로날것이다。▼내무부 방안에 의하면「손수운전」하는 차에는「차주운전」이란 딱지를 붙이게 한다。그것은「免責特權」의 표지나 다름없을것이다。그러나 어떤 경우건「特權」은 秩序에 해롭고、법의 차별적용은 있을 수가없다。그렇다면 事理는 뻔하다。그것은 처벌을 완화하되、모든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다。더구나 우리 교통법규가 처벌에 치우쳤고、그 효과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고하는 마당에、취업운전자만 엄하게 다스릴까닭은 없을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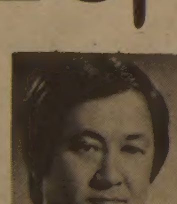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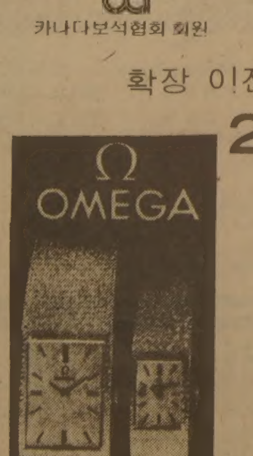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새벽1시
특별메뉴…
●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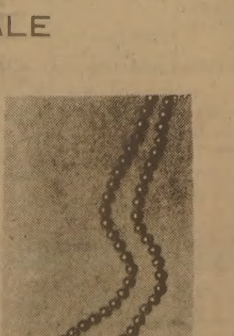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금주의 새 리스팅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카나다보석협회 회원
KORYO
확장 이전 1주년 기념 SALE
20 % OFF



고 려 보 석
EATON CENTRE (Level 1 분수대옆)
979-3196

民衆의 지팡이論

그래도 국민들은 경찰을 의지한다

李鍾聲 <장로회신학대학장>

불행하게도 한국인은 경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 본 일이 없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볼때 경찰이란 국가의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무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까이하기 싫고 귀찮고 무서운 존재였다. 일제때 아이들이 울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하는말이 『순사온다. 순사온다』고했다. 순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것이었기에울던아이가울음을멈추었을까.

해방후의 순경은 「수지」가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공비토벌때문에 위험하기도 했으나 국민에 대하여 횡포할수 있고 수입도 괜찮은 직업이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서도 대학졸업자 못지않게 「세력」도 부리고 「수지」도 맞는 직업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지 못한것이 사실이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아주 나쁘게 말한다면 경찰이란 운전사들로부터 돈을 뜯는다거나 소매치기의 代父노릇을 한다는 등 부정적인 警察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못해 왔다.

나는 어릴 때부터 경찰에 대한 相反된 인상을 가지고 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日本에 가서 공부를하기위하여 여행권을 수속했으나 2년이 지나도 여행권을 내어주지 않았다. 참다못해 주재소에 가서 따졌더니 『네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되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니까 보내 줄수 없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吳라는 한국인이었다. 시민을 도와주는 순경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는 순경이었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나를 도와준 순경도 있었다. 국민학교 5학년때 집안이 가난해서 40里나 떨어진 邑에가서 하숙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나를 뒷바라지 하기에 아버님은 매우 힘이 드셨다. 그사정을 안 李라는 순경은 매월 50전(한달의 월사금) 씩 2년동안 도와주었고, 그덕택에 나는 무사히 국민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는 순경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두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그후에 계속해서 나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돌아가면 경찰에 투신하여 모범경찰관이 되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보자』 李순경으로부터 받은 좋은 인상과 吳순경으로부터 받은 나쁜 인상이 승화되어 모범적인 경찰관이 되어 보겠다는 생각이 나에게 나타났던것 같다. 귀국하여 친척들과 만난후 장차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가 의논해 보았다. 가장 강하게 권고받은 직업은 정치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교육계에 투신하여 현재까지 그일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歐美각국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대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인상을 강하게 준다. 美國서부활극에서 나오는 「마셜」은 난폭한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해주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어디든지 「마셜」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이와같이 경찰은 민중편에 서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한다.

英國에서 얼마동안 연구생활을 한 일이 있다. 그때 발견한 것은 영국의 경찰은 첫째 인물이 잘생겨 키가 크고 미남이 많다는 것, 둘째 제복을 근사하게 입고 있다는 것, 세째로 피스톨을 차지 않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네째로 뛰거나 급히 걸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친구에게 물었더니 영국의 경찰은 영국의 國政과 사회사정을 상징하는것으로 그들이 당황해하거나 달리거나하면 무슨 큰사건이라도 터졌다는 불안감을 국민에게 주기때문에 그러한 침착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이야기를 듣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은 영국서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의 비행은 과거에도 많이 논란되어왔다. 4·19의 큰 원인중의 하나는 馬山에서 일어난 한경찰관의 폭행사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河형사의 피살자 은행예금증서 절도사건처럼 국민에게준 큰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을것이다. 국민을 배신한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어서 국민은 경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큰 불안을 느끼지않을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란 작게는 나의 재산과 생명의 보장은 어디에서 얻을것이며 크게는 이나라의 재산과 운명은 누구에게 맡겨야 좋을지 몰라서 가지는 불안이다. 이렇게까지 경찰의 紀綱이 해이해져 있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한국경찰이 실추된 국민들로부터의 信賴를 언제회복할수 있을는지 매우걱정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경찰자체에 대하여 오해해서는 안된다. 가령 경찰 가운데 河형사 처럼 국민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해도 경찰 전체가 그런것은아닐 것이다. 하나의 비행을보고 전체를 모두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먼저 河형사사건의 근저에깔려 있는 핵심에 요소를 예의분석하고 그遠因과近因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방지해야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경찰의 질적향상과 信賴度의 증진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河英雄형사의 私생활에관한 신문보도를 읽고 河형사가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범한것은 그의 본질적인성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에서 온 일시적 실수라는것을 알게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罪過를 우리는 냉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사람 자신은 저주하지 말아야한다.

河형사가 그러한 죄를 범하게된 또 하나의 원인은 경찰제도자체에 있다고 본다. 경찰관 채용에있어서 그들의 교육의 정도와 品格的 측면을 깊이고려하지 않고 극히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한다. 아직도 남아있는 정실인사와 경찰관들의 국민안녕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미온적책임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게 되는 원인이기도하다. 특히 피의자들에대한 인권유린은 한번 사건에 관련돼 경찰에 출두해본 경험이 있는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점이다.

이러한 일이 쌓이고 쌓이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차제에 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간부가 입을 모아 약속하기를 실추된 경찰상을 조속한 시일 안에 회복하겠다고 하나 그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회복해야할 경찰상을 한국경찰이 가져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반가와하고 국민이 받아들일수 있는좋은 警察像을만들어내야할것이다.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이되려면 먼저 모든 警察人은 宗敎人이 가지는 信仰처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져야한다. 가진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자세로 나오는 경찰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봉사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警察人은 두 主人에게만 복종해야함을 행동의 철칙으로 삼아야한다. 두 主人이란國民과國法이다.

이 두 主人 외에 다른 主人은 가져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警察人은 반드시 피해야할 두가지 怪物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政治와 돈이다. 경찰이 정치 맛과 돈 맛을 알면 안된다. 목사나 중이 고기 맛과 돈 맛을 알아서는 안되는것 이상으로 정치 맛과 돈 맛을 알아서는 안된다.

민중은 경찰을 사회생활의 보증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적이 들면 경찰서에 뛰어 간다. 불이 나도 경찰(소방서)에 알린다. 막난이 아들이 부모를 위협해도 경찰에 달려간다. 급한 환자가 생겨도 병원과 경찰에 알린다. 사회에 혼란이 생기면 경찰에 의지한다. 이와같이 민중의 생활은 하나에서 부터 열가지가 다 경찰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토록 경찰은 민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차제에 경찰은 자기들의 임무의 고귀함을 재확인하고 민중을 지배하거나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警察像을 확립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려는 이 역사적인 과정에있는 조국을 빛나게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도 국민대다수는 경찰을 믿고 의지한다. 존경하고 동정한다. 그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금번 河형사의 사건을 보다 나은 警察像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貧富격차 해소 美、조건부 수락

南北회담폐막…開途國에 使節團파견

【칸쿤23日AP·UPI=聯合】로널드·레이건 美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선진국및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의 南北 정상회담은 23일 레이건美 대통령으로부터 세계貧富격차해소를 위한 국제적협상을 조건부로 수락한다는 양보를 얻어내고 貧富격차의 심화가 국제불안의 요인임을 확인하는 긍정적 결과를 거두고 2일간의회를 폐막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23일 첫날 회의에서 미국이 조건부로 세계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開途國 농업개발을 지원하기위해 미국의 전문사절단을 어느나라에라도 파견할것이라고 제안, 회의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南北정상회담에 참석한 당사국 지도자들은 美國의 세계협상수락용의 표명이 협상을 위한 進一步라고 말하는등 낙관론을 표명했으며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대변인은 미국제안의 특별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伊노동자 千만 總罷業단행

政府의 내핍經濟계획 반발

【로마23日UPI=聯合】1천만이상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23일 임금통제를 통해 이나라의 심각한 인플레를 해소하려는 지오반니·스파돌리니 수상의 내핍경제계획에 반발, 4시간이상의 전국적인 파업및 대규모시위를 단행했다.

공산당계의 CGIL, 사회주의계열의 UIL및 가톨릭의 CISL등 이나라 3大노조에 의해 주도된 이날파업및 시위는 로마, 바리, 타란토등 특히 밀라노의 경우 10만노동자들이 중심가에운집, 총파업을 요구하는 지난 2년이래 최대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暗殺團을 결성 蘇將校등 殺害

【뉴델리23日UPI=聯合】아프가니스탄정부군대 반란세력들은 암살단을 결성, 소련군장교및 아프간의 지방관리들을 계획적으로 죽이고있다고 정통한 아프간소식통이 23일밝혔다.

메아리

매사가 알고는 있으면서 실행에 옮기기어려운것이 「상식」이다. 물가안정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것이 저축이라는 상식도 막상 실천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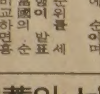
저축은 國富와 연결된다. 국제저축은행기구(ISBI)가 조사한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근면 절약하는 스위스국민의 저축률 또한 제일 높다. 지난 79년 국민 한사람이 1만6천9백43달러를 저축했다. 그다음이 일본, 벨기에 순이며 미국은 7위로 처졌다.

이순위를 세계은행이 발표한 富國의 순서와 비교하면 흥미롭다. 79년 세계 6위의 부자나라 미국이 80년엔 8위로 밀려났다. 저축률이 높은 벨기에와 노르웨이에 따라 잡힌 것이다. 저축=富國이라는 등식으로는 볼수 없지만 표면상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저축을 하는 수단도 나라마다 차이가난다. 미국은 증권시장에 쏠리나 영국, 서독, 덴마크같은 유럽국가는 보험쪽에 돈을 맡긴다.

우리국민의 저축열이 아시아에서 크게 뒤지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저축률 31%(79년) 가 넘는 일본은 말할것 없고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에 비해도 뒤떨어지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貯蓄의 날



저조한우리저축률이 최근 많이달라졌다. 금년 9월말현재 저축성은행예금은 10조원을 넘었다. 작년말과 대조할때 2조원이나 더늘어난것이다.

저축의식도 변화를 보인다. 도시인을 대상으로 잡은 여러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부의 절반이 저축을 먼저하고 생활하고 있다한다. 저임금의 근로여성 대부분이 소득의 45%이상을 적금에 넣고 있다.

농협이 밝힌 농가저축실태를보면 농민의 71%가 저축을 하며 그형태도 실물자산 위주에서 금융으로 옮겨간다. 저축목적은 교육비, 영농비, 노후대비등이다.

착실하게 늘어나는 저축열엔 한가닥 불안이 없지않다. 부동산붐을 노리는 「한탕熱」이나 사채의존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숨길수 없다.

건전한 저축의식이 국민경제의 튼튼한 밑바탕이라는것을 「저축의 날」을맞아 다시 마음에 새겨야겠다. 우리생활을 위협하는 인플레와 싸우는 길은 저축이 으뜸임을 거듭 강조해 둔다.

波勞組、28일 警告파업

政府、분쟁땐 軍投入…共黨선聯政모색

【바르샤바24日=聯合】폴란드 자유노조는 23일 최근의 ▲식량부족사태와당국의 ▲반자유노조선전 ▲노조원에대한 박해 ▲노조언론에대한 공격등에 항의, 오는28일 정오를 기해 1시간동안 전국적인경고파업을 벌이기로 선언했으며 정부는 이에맞서 즉각 24일밤 전국의 모든분쟁지역에 군특수부대를 파견, 노동및 경제위기에 대처할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개최된 정부상임간부회의는 성명에서 노동불안과 경제위기에 대처, 장교와 2년이상의 복무경력을가진 고참병사들로 구성된 군특수부대를 전국분쟁지역에 파견할 것을 선언하는 가운데 「비상사태는 비상조치를 부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성명은 몇몇노조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선동했다고 비난하면서도 「무법과 무질서는 겨울을 맞아 특히 위험천만한 일이다」「경제적 파국은 국민적 파탄을 불가피 자초한다」면서 애국심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 강경과 유화적 태도를 동시에 보였다.

한편 공산당은 자유노조를 비롯, 가톨릭지도자·각계각층의 사회대표를 망라하는 거국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정통한소식통이 23일 전했다. 야루젤스키는 지난18일 당 제1서기 취임후 그동안 각 정당 지도자및 가톨릭지도자들과 만나 새정부 구성방안을 타진해 왔었다.

노조지도자들은 노조의 역할이 정부에 대한 견제이지 통치는 아니라고 주장, 연정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야루젤스키와 바웬사는 24일 회담을 갖고 폴란드의 정치적 장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罷業결정한 波勞組 폴란드 루보고레省 노동자들이 22일 식량부족에 항의, 총파업시위를 시작한 가운데 루보고레 국영농장의 정문에는 「파업」이라는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나부끼고있다. 【루보고레(폴란드)23日AP檢=聯合】

美대사추방 警告

中共, 臺灣에 FX戰鬪機등 판매땐

趙紫陽, 레이건에

【워싱턴23日=曺淳煥특파원】趙紫陽중공수상은 미국이 FX와같은 고성능전투기를 臺灣에 판매하면 중공은 北京주재 미국대사를추방하고 하위급외교관계를 유지하는등 강력한 대응책을 취할것이라고 멕시코에서 열리고있는南北정상회담참석중 레이건미대통령과만난 자리에서시사했다고 CBS·TV방송이 3일 보도했다.

統一敎信徒 示威 뉴욕서 5천여명

【워싱턴23日=曺淳煥특파원】뉴욕·타임즈紙는 약5천명의 통일교신도들이 뉴욕시폴리·스퀘어·파크에서 집회를열고 교주 文鮮明씨가 부당한종교박해를 받고있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는 사진을 23일자 1면과 사회면에 각각 크게실었다. 文씨는 22일 뉴욕시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하여 판사의 요구에 따라 여권을 예치하고 탈세를 했다는 기소사실을 부인한후 시위집회장에 나와 미국서 지난 5년간에 처음으로 행한 26분간의 군중연설에서 『나의 피부색이 희거나 종교가 장로교파였다면 이자리에 서지않을것이다』고 말했다고 미국신문들은 보도했다.

리비아 接境에 埃、大軍을배치

對수단侵攻계속땐 武力制裁가능

【메르사마트루(이집트)23日AP=聯合】이집트는 인접리비아와의 관계긴장과관련, 西部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배치하는등 유사시 일전태세를 완료했으나 서방외교관들은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가 이집트와의인접 수단에대한 압력을 완화하는한 對리비아戰을 개시하지는 않을것으로 믿고있다.

런던警視廳 수사착수

리비아支援위해 美서 傭兵모집

【런던24日AP=聯合】리비아를 돕기위해 미국에서모집된 용병들이 지난 22일 영국 남부의 개트위크공항을 거쳐 리비아수도 트리폴리로 떠났다고 영국의 가디언紙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런던 경찰청의 특수부서가 가다피 리비아대통령을 지원하기위해 영국에서 거래되는 무기및 부품과 용병모집방식을 집중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런던을 거점으로한 이번 용병모집작전이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일련의 회사들을 통해 이뤄졌으며 트리폴리에 있는 前美중앙정보부(CIA) 요원인 에드윈·윌슨의 조종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23日=聯合】美국무부는 23일 10명에서 20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리비아항공기편으로리비아군대를 인접 차드에 공수하고있다는 미확인정보를 입수하고있다고 밝혔다.

【워싱턴23日=曺淳煥특파원】앨런·롬버그美국무성대변인은 10~20명의 미국인조종사와 기술자들이 주로 항공기임대사업을 하는 리비아의 유나이티드·아프리칸항공사(UAA)에 종사하고있으며 이들이 UAA항공기를이용, 리비아군대를 차드에 실어나른다는 미확인정보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아프간政府、反政軍에 通行料

카불外廓막혀 裝備등 반입때

【뉴델리22日UPI=聯合】親蘇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수도 카불외곽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회교叛軍에게 돈을 지불하고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카불로 반입하고 있다고 前아프간관리가 22일 폭로했다.

수상실산하 예산국에서 회계감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아프간을 탈출한 이 관리는 UPI기자에게 아프간농무성이 시멘트믹서 機叛를 카불로 들여온 댓가로서 叛軍게릴라단체인 무자히덴에게 1천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회의에 자신이 직접 참석했었다고 밝혔다.

臺灣·中共기자 東京서 첫접촉

【東京24日AP=聯合】중공과臺灣기자들이 23일 도쿄(東京)에서 처음으로 접촉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1면기사에서 중공과 대만기자들간의 첫 접촉이 도쿄에서 열리고있는 중국辛亥혁명에 관한 3일간의 국제회의 마지막날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인사이드

美에 空軍傭兵 파문

美서 뽑아 리비아로 보내

차드 侵攻때도 作戰수행

美연방수사국(FBI)은 전 중앙정보국(CIA)직원 에드윈·윌슨이 리비아공군에 근무할조종사와 항공정비사를 모집한 사건을 전면조사하고있다.

뉴욕·타임즈紙는윌슨이 런던에 사무실을차려놓고 미국인조종사와 항공정비기술자를모집, 이들을 현재 리비아공군소속화물·수송기및 헬리콥터의 조종및 정비에 종사케하고있다고 지난22일자신문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윌슨이 모집한 조종사와 정비사중에는 영국인과 캐나다인도 포함되어있다고 보도했다.

리비아공군에 미국인 조종사와 정비사가 몇명이나 근무하고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있으나 이들은 80년말 차드침공등 리비아공군작전에도 참여했으며 윌슨이 하수인을 앞세워 미국내에서 모집한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관리들은 이번 FBI수사결과 지금까지 리비아내 미제항공기가 어떻게 운항되고있느냐는 미스터리를 풀게되었다고 말했다.

리비아입국비자를 얻어 트리폴리행비행기를 타기위해 금주초 런던에온 미국인 항공정비사 리처드·러브는 앨라배마주에서 1년간 리비아군에 근무하기로 윌슨의 하수인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리비아에 살고있는윌슨은 리비아에 불법으로 폭약을 수출하고 테러리스트를 훈련한 혐의로 연방검찰에의해 지난해 기소된바있다.

윌슨은 76년까지 美해군정보국에 근무했으며 이후 리비아에 테러리스트훈련용 정보, 무기, 폭약을 만드는등 리비아와 깊은 거래관계를해왔다.

미국정부당국은 미국인 용병모집과 자금제공및 여행계획이 런던에서 주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이들을조사하자면법적관할권이우선문제가되고있어고심하고있다. 【워싱턴24日=聯合】

운전사가 情報제공

아프간게릴라 蘇工業相납치

反政軍50명과 교환석방진행

아프간회교저항단체인 헤즈비·이슬라미의 대표 뉴네스·할리스는 24일 현재 반군본부에 억류돼있는 소련고위고문관(본보21일자보도)이 소련 광산공업성소속 오크림·유크(67)라고 밝혔다.

할리스는 또 국제적십자사종재로 유크를 현재 카불당국이 억류중인 반군동료50명과 교환석방하는 교섭이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있다고 말했다.

유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탐사활동을 벌이고있는 50인 소련지질학자의 대표이며 공산당원으로 형식상 駐아프가니스탄 소련대사관의 고위요원으로 돼있다.

회교저항단체는 이날 아프간 군복을 입은 유크의 사진과 유크가 부인과 카불주재 소련대사관 2명의 고위관리들에 썼다는 편지의 사본도 공개했다. 유크는 그 편지에서 자신이 무자헤딘반군들과 교환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할리스는 고문관 유크가 9월12일 점심식사후 카불중심가에서 납치됐다고 전모를 밝혔다.

그의 납치계획은 유크의 운전사가 비밀리에 제공한 정보에 의해 수주간 모의됐다.

유크의 운전사는 12일하오 카불중심가의 약속한 장소에 이르자 차를 멈춘후 달아났고 곧이어 차속으로 뛰어든 회교도게릴라 2명이 유크를 의식불명상태로 쓰러뜨렸다.

게릴라들은 검문소 경비병의 경례를 받으며 유유히 시외로 차를 몰아 탈출한 것이다.

게릴라지도자들은 유크는 체포된후 『소련이 인기가없는 카르말을 대통령에 앉힌 것은 실패』라고 비난하고 게릴라와 소련군간의 전투중 많은 시민이 살해된데 분노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슬라마바드24日UPI·AP=聯合】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월~토 9:30AM~6:00PM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53-0684
영업시간
●월~토 11AM~7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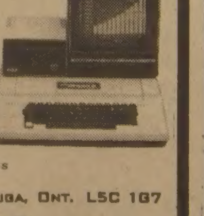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메 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Queen / Bay / Temperance St. / Ⓟ / Yonge / King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416) 222-9480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30AM~새벽2시 까지
토 일: 2:00PM~2: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 선 남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 PM~4 AM
토~일: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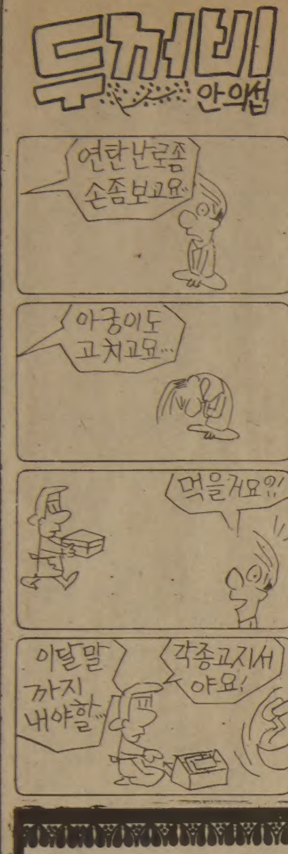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怨恨따른 주변人物수사

금복주社長집 爆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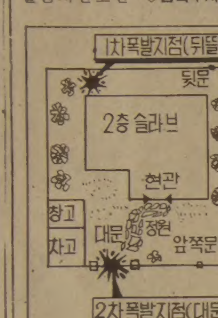
몇해전 큰 勞使 마찰빚어

時限장치 私製폭탄…共犯 2명이상인듯

◇금복주사장 金弘植씨

【大邱=盧基昌기자】속보= 금복주金弘植사장(55)집폭발물사건을 수사중인 大邱中部경찰서는 24일 문제의폭발물이 시한장치가 부착된 상당한 위력의 폭발물이며 이사건이 원한에 의해 이루어진 계획적인 범죄인것으로보고 최근에 해고 또는 퇴직한전 종업원들과 직원, 경쟁회사를 비롯한 거래처등 金사장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수사형사 17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三德파출소에 수사본부 (본부장金鳳玄총경)를 설치한 경찰은 이 폭발물이 탄약을 다루어보았거나 제조기술 또는 지식이 있는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고



사고당일인 지난10일밤 폭발물장치를 전화로 통고한뒤 1분후에 연쇄적으로 폭발한점등으로보아 단독범이아닌 2명이상의 공범이 있을것으로 추정하고있다.

경찰은 사고발생이후 가족측이 수거, 보관해왔던 폭발물 파편및 부서진 건전지조각등 25점의 유류품을 인계받아 폭발물의 성분과 폭약의 종류, 제조회사등을 밝혀내기 위해 23일밤 형사대를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급파, 성분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폭발물의 파편을 분석한결과 직경 3~4㎝, 길이 6~7㎝정도의 가정용 수도관을 연결할때 사용하는 직경25㎜의 「ㄱ」자형 이음쇠로이무쇠속에 폭약을넣어 제폭발물을 제조한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이 이폭발물을 시한폭발물로 보는것은 폭발당시사고현장에서 수거된 파편등유류품중에서 9V짜리 건전지 2개와 시계테이프 또는 선풍기등 전자제품 조작때 사용되는 구부러진 강철등이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이사건수사의 방향을 일단 원한관계로 보고있는 이유는 범인이 폭발사고직전 전화를걸어 폭발물이 장치된 사실을 알려준 1분후쯤 폭발물이 터졌고 사고10일뒤 배달된편지에 『파멸의 구렁까지』『어디든지 따라갈 것이다』『한서린 칼날』등의 소름끼치는 협박내용이 많이 담겨져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金사장을 비롯한 가족측은 경찰에서 특별히 원한을 살만한 일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 경찰은 금품을 노린 단순 공갈·협박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수사를 펴고있다.

이밖에 경찰은 金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모기업금복주를 비롯, 慶州법주·화원동산등 4개업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최근 金사장이 大邱 인근유원지인 화원동산개발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투자해온 사실을 감안, 특히 화원동산 개발문제를 둘러싼 업자들간에 이견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금복주사장집 폭발사고당시 수거된 무쇠파편조각과 시한폭발물임을 뒷받침해주는 시계테이프·건전지등 유류품. 【大邱=電】

경찰은 또 金씨의 기업이 외형규모에 비해 노사관계와 종업원지문제등에서 다른 대기업체에 뒤떨어지며 몇해전에는 주력기업인 금복주에서 노조결성문제로 큰마찰이 있었기때문에 최근 퇴직한종업원등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으나 金씨의 재계영향력을 감안, 이권문제를 둘러싼 범행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있다.

51년 양조업손대 財力막강

大邱商議 부회장등 겸임한 온순한성격

소주·法酒 慶北시장등 석권

金사장주변

金씨는 大邱지방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재계에서도「신흥재벌」로 주목을 받을만큼 막강한 재력을 지니고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하고 있다.

경북安東태생인 金씨는 지난51년 三山양조 합자회사를 세워 소주양조업을 시작한이래 백구소주등 경쟁업체를물리치고 경북지방의 소주시장을 석권했다.

회사이름을 주식회사 금복주로 바꾼후 억척스런 기업경영에 힘입어 경북지방 소주시장의 90%이상을 점유했고 眞露소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소주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있다.

金씨는 또 大邱시민들의무료유원지였던 5만여평의 화원동산유원지를 사들여 유료유원지로 조성하고 경기도驪州에 기계공장 서호도크를세웠으며 무역상사인 금복상사를 개설, 신흥재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반경기가 불황일수록 호황을 누린다는 소주특유의 소비성때문에 최근 몇년동안 급성장, 부도를낸 大邱보국직물의 공장대지 5천여평을 사들이는등 재력을 과시하기도했다.

金씨는 이같은 재력을 바탕으로 반공연맹경북지부장, 총력안보협의회 경북도협의회장, 大邱상공회의소 부회장,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및 최근에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경북지부장까지 겸하고있다.

한편 金씨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당시 大邱지방에서 최고득표를할만큼 인심을 얻고있는 편이며 金씨자신도 경찰에서『생명을 노릴만큼 원한을 산일이 없다』고 진술하고있다.

老木들어선 3백89坪大邸宅

큰대문걸어잠그고 外人통제

金사장집

한편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金사장을 비롯한 가족들은 대문을 굳게 걸어잠근채 보도기관과의 면담을 일체 피하고 있으며 외부인사의 출입이 금지된채 전담형사들만이 집주위를 서성거리고있다.

金씨집은 대지 3백89평에 연건평 1백57평의 2층양옥으로 정원에는 우람한 노목들이 들어서있으며 지난10일 첫번째 폭발때 파편을 맞은 히말라야시다 한그루가 껍질이 벗겨진채 증거물로 보존되어있다.

年間 매상액 3百億 넘어

금복주회사

51년 2월 三山양조장으로 창업한 주식회사 금복주는 75년 1월 慶北소주공업주식회사를 흡수, 大邱에 2개의 공장을 갖고있으며 종업원수는7백80명으로연간매상액이3백억원.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潤相군 추적 4계절이 바뀌었다

시민生命찾기에 오늘도 안간힘

2백여만명 指紋대조도 헛수고

유괴 1년 전문가診斷 받았는데

이제는 기억 해주는 사람도 별로없다. 「망각」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과거사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추적」의 손길을 거둘수가 없다. 이제20일 있으면 李潤相군이유괴된지 만1주년. 수사본부는 묵묵히 외롭고 끈질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전경찰의 명예를 건지겠다는 야심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직무이기 때문에 「성실」하다보니 4계절이 바뀌었다. 潤相군 사건수사본부는 지난20일 張秉琳교수 (서울大·심리학) 盧東頭정신신경과전문의 李炫馥교수 (서울大·언어학)등 7명의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 우리나라 수사사상 처음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다. 「1년시한」을 계기로 슬럼프에 빠진 수사체제에 한번 활기를 넣어보기 위해서다.

◇潤相군이 그린 여인상과 자화상. 전문가들은 『주변인물로 믿어지는 여인상에는 潤相군이 감시받고있다는것과 증오감이 표현돼있다며 자화상은 이로인한 불안·긴장·갈등등이 나타나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張秉琳교수는 범인은 潤相군부모를 잘 아는 사람으로 단정, 부모의 성장과정, 대인관계, 원한관계등에서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張교수는 또 『潤相군이 그린 여인상의눈이 좌우로 추켜 올라간점등은 潤相군이 평소 이여인으로부터 무언가감시받고 있었음을나타낸것』이라고 분석, 주변인물 (가족중1인)로 믿어지는 이여인과 제3자사이의 모종관계를 潤相군만이 알고있었던것이 潤相군유괴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전문가 진단

범인은 父母잘아는 사람…怨恨관계

여자 犯人은 비서나 交換孃 추정

催眠실험에선 어머니만 거부반응

또 西江大 金仁子교수(심리학)는 협박전화를한 여자범인을 말씨는「직업적인투」가 짙다고 분석, 여자범인은 교환수나 비서등 전화 응대의 경험이 많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추정했다. 金교수는 이밖에도 범인이 건것으로 보이는 전화중 潤相군의 아버지 李貞植씨(41)가 받은 경우에는 통화를 하지않고 전화를 끊은일이 많은것은 범인이 李씨와 잘아는 사람이거나 반대로 潤相군의 어머니金海慶씨(41)와 「거래」를 하려 했던것으로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신신경과전문의인 盧東頭박사는 편지전화내용으로 미루어 『돈이 범행동기에서 결정적인것이 아닌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범인이 潤相군의 외출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盧박사는 특히 潤相군의그림을 분석, 주변인물로 보이는 여인상이 음란하고 험악하게 표현된점에서 潤相군이 어떤「사건」을 계기로 성적문제에 대한 갈등을겪어 성적으로 조숙한듯한 분위기를 엿볼수있다고 말했다. 盧박사에 의하면 潤相군의 자화상에는 이같은 갈등에서 나오는 불안과 긴장·우울등이 짙게 나타나있으며 潤相군이 지나치게 자기를 통제해야하는 생활속에서 안정을 잃고 있었던사실을알수있는것으로 분석했다.

盧교수역시 범인은 潤相군의 외출시간을 알고있는 사람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李炫馥교수는『범인의 협박전화내용에는 원한이 동기였다는것이다.』

선데이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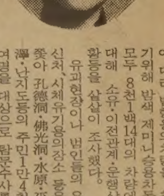
한편 유괴현장 목격자와 潤相군부모, 누나 娟受양등에대해 최면을 실시한바있는 柳漢平교수(檀國大)는 金씨만은 최면에 저항, 원한관계등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수 없었음을 지적, 金씨가 자기방어자세를 풀도록 하는것이 주변인물수사에 있어 선결문제라고 강조했다.

李교수는 범인이 중부지방에서 출생, 서울·京畿지방에서 오랫동안 성장한 언어특징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이와함께 여자음성을 반복해 방송, 제보를 기대할것을 제안하고 범인을 검거한 경우 전화음성으로범인여부를 판정할수 있다고주장했다.

이전문가들의 진단이「사건해결」에 어떤실마리를 준것은 아니다. 또 그분석의 내용이 새로운것이라고도 볼수 없다. 그러나 0.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으려는 수사본부의 성의가 돋보인 회의였다는점은 부인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7명의 전문가들이 부부사정을 잘아는 주변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에따라 친·인척 1백82명과 潤相군의 부모의 친구, 동창, 潤相군의 아버지李貞植씨(41)의 사업관계자, 종업원등 6백3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사요원들은 李씨가 잠꼬대를 주장함에따라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재검토 하기로했다.

공개수사체제로 들어간뒤 2백80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했던 수사본부는 장기화 추세에 따라 40여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긴 했지만 이사건은 동원한 수사인력이나 수사범위등 모든면에서 한국수사사상 많은 기록을 남기고있다.


◇유괴된지 1년이되는 潤相군.

경찰이 그동안 수사선상에 올린 용의자만도 약취유인전과자 2백91명을 비롯, 기관원사칭공갈배, 潤相군집과 淸溪川주변우범자및 전과자등 모두 1천6백여명. 이중 1천5백여명을 전국각지를 뒤져 찾아냈다. 또 범인들이 潤相군집의 내부사정을 잘아는 주변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에따라 친·인척 1백82명과 潤相군의 부모의 친구, 동창, 潤相군의 아버지 李貞植씨(41)의 사업관계자, 종업원등 6백3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또 넘겨준 차량조사결과에 따라 범행용의차량을 찾기위해 밤새 제미니승용차등 모두 8천1백14대의 차량에 대해 소유·이전관계·운행상황등을 샅샅이 조사했다. 유괴현장이나 범인들의 신체·시체유기용의장소 등을 잡아 孔德洞·佛光洞·水原·平澤·나지도등의 주민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한편 潤相군의 누나 娟受양 유인미수사건관련, 서울女高·永登浦女高·弘益女高등의 졸업및 재교생을 중심으로 모두 9천4백여명의 소재를 추적, 용의점을 수사했다.

경찰은 1만1천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병원7천여개소, 여관·하천·야산등 2만1천여개소의 유기용의장소를 수색하고 永登浦區관내의 7천6백세대에 대한 특별호구조사를 실시하는한편 77만여장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이 기간이 소요된 지문대조작업에는 연인원 6천9백명이 동원돼모두 2백만명분의 지문을범인의지문과대조했다.

이사건의 전담반장인 永登浦경찰서 형사계3반장 李在武경위는『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면목이 없었는데, 요즘같이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을때 이사건을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투지를 불태운다.

지난 1년간 永登浦경찰서의 전담수사요원들은 집에 들어간날은 손가락으로 헤아릴정도. 朴昌吉형사는『수사비가 떨어지면 돈을 구하기 위해서나 집을 찾아갈 정도였다』고 말한다.

물론 수사본부의 이같은 노력은「인력의 낭비」라는 비판적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시민의 인권을 찾아주고 지켜주기 위해 그늘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姜秉泰기자】

서울市警 자체淨化

서울시경은 관광저해사범 특별단속에서 경찰관이 금품을받고 비위를묵살한 사실을 확인, 경찰자체정화를위해 관련자를 형사입건 또는 징계했다.

시경은 이와관련, 24일 南大門경찰서 형사1반장 朴洪煥경위를 파면, 형사입건하고 牟相植경장과 洪元根순경은 전출시키는 한편 수사과장 李泰鳳경정과 형사계장 尹琪植경감은 징계위에 넘겨 인사조치키로 했다. 또 韓基泰서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했다.

경찰에 의하면 朴경위는 지난9월25일 하오 7시30분께 P호텔에 투숙중인 일본인관광객을 찾아가는 매춘관광요정 접대부 3명을 연행조사하던중 다음날인 26일 동료정사장 金惟熙씨(41)로부터 3백만원을받고 지배인 李泳煥씨(31)만을 금품갈취혐의로 입건하고 다른사람은 모두 훈방했다는것.

朴경위는 이사건이 드러나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10월19일 받은돈을모두돌려주었다. 牟相植경장은 동료정사장 金씨를 연행조사중 형사실에서 폭행을 했으며, 洪元根순경도 三龍관광경리과장 鄭璟燮씨(30)를 알선비 갈취혐의로 조사하면서 폭행을한혐의를 받고있다.

오늘 3~12도

추위 기세꺾여

어제 전국이零上圈

영하의 추위를 몰고올것이 예상되던 날씨가 24일 새벽부터 기세가 꺾였다.

중앙관상대는 霜降인 23일 기온이 계속 급강하하자 24일에는 중부이북지방의 최저기온이 영하5도까지 내려가는등 때이른 한파가 닥칠것이라고 예보했었으나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24일 아침기온이 서울3·6도, 春川2·2도, 大田4도, 光州5·3도등으로 전방고지와 大關嶺등산간지대를 제외한 전국이 영상권에서 맴도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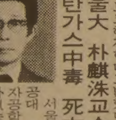
관상대는 급강하할것 처럼 보이던 날씨가 예상을 뒤엎은것은 경기만부근에서 갑자기 형성된 저기압이 몽고지방에서 확장해오는 한랭한고기압의 유입을 막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관상대는『휴일인 25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구름이 다소 끼고 아침최저기온은 3~12도로 24일보다 약간 더 누그러지겠다』고 예보했다.

폭풍주의보 해제

중앙관상대는 24일 하오7시를기해 서해남부, 남해서부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를 해제했다. 관상대는 또 25일자정을 기해 동해남부해상에내려진폭풍주의보도해제한다고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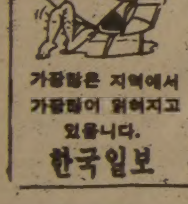
서울大 朴麒洙교수 연탄가스中毒 死亡



서울大공대 전자공학과 朴麒洙교수(56·사진)가 24일 상오7시 서울道峰區彌阿6洞 645의109자택에서 연탄가스에 중독, 숨졌다. 부인 高英培씨(51)에 의하면 朴교수는 전날밤 건넌방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圓光大교수 林翼斗씨

圓光대학교 경상대학 林翼斗교수(사진)가 24일 상오4시50분 서울麻浦區阿峴洞 혜성아파트 2동01호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60세. 林교수는 金融通貨위원과 農協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유족은 미망인과 3남1녀. 발인 26일 상오9시 자택서 ☎8334


가뭄말은 지역에서
가뭄팡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YOUNG'S JEWELLERY 여성의 미(美)

한국의 코스모스 보석상에서 6년간 보석상을 경영하다 지난80년부터 이곳 토론토에 보석 비즈네스를 Open하고(Whole Sale) 보석전문가로써 활약하고 있읍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최고품질의 보석을 구입 할 수 있음을 보장하오며, 많은 stock도 구비하고있으니, 구경 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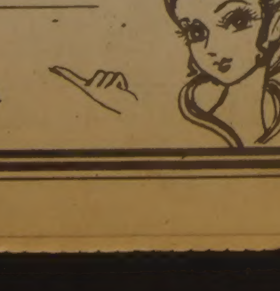
* HOME PARTY 전화주문 환영.

저희보석 공장에서는…
보석주문
보석수리 일체
보석감정
보석 뉴 디자인
오래된 보석을 새 보석으로 개조해 드립니다.

올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은 여성에게 가장 기쁘고 값진 선물인 다이아몬드, 금팔찌, 금목걸이, 화장품으로 해 보세요.

동양인에게 알맞는 고급화장품(Artistry)으로 교민에게 봉사코자 합니다.
매력적인 화장품과 테크닉으로 개성있는 여성의 美를 가꾸어 보십시요.

* 신부화장도 예쁘게 해 드립니다.
* 무료스킨 테스트와 무료배달.
* 기미, 여드름으로 고심하시는 분, 언제든지 개인상담 환영합니다.



주 소 : 790 MILITARY TRAIL, UNIT #9 SCAR. ONT.
전 화 : B) 284-9325, R) 281-1954
MRS. 남

초대의 말씀

본교회에서는 헌당예배와 다섯분의 장로장립식을 다음과 같이 갖이고자 하오니 오셔서 그 기쁨과 축복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받을분 : 곽영간·김관문·김홍식·오상철·정 용

일 시 : 1981년11월15일(주일) 오전11시30분

장 소 : 동부한인장로교회
251 CHRISTIE ST.
(AT One Block South of Dupont)

전 화 : 530-1142~3

— 동부한인장로교회 —

3승 1무 1패 延世大 우세

蹴球 得點없이 비겨
高大는 럭비서도 逆轉敗 14-12

定期戰 폐막

금년도 延高정기전은 延世大가 3승1무1패로 우세를 보인 가운데 끝났다. 첫날 야구와 아이스하키서 승리를 거두었던 延世大는 24일 최종일 럭비서 14-12로 승리를 거두고 축구서는 득점없이 비겼다. 高麗大는 첫날 농구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패기의 攻防 延高 축구대결. 延大의 丁海遠(左)과 玄基浩(中)가 高大문전으로 대시하는 순간 高大GK 金顯泰가 한발앞서 볼을 막고있다. 양팀은 0-0으로 비겼다.

이날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축구서 李康助 李泰昊 黃石根을 앞세운 高麗大와 丁海遠 邊炳柱가 공격 주축을 이룬 延世大는 전후반 활기찬 공격을 전개했으나 득점을 올리지못하고 비겼다. 이에 앞서 벌어진 럭비서 기민한 오픈 플레이를 주무기로하는 延世大가 포워드진의 강세로 맞선 高麗大를 14-12로 꺾었다.

延大의 趙龍德은 경기종료 10분을 남기고 吳和錫의 패스를 받아 트라이에 성공, 延大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延高전 역대통산전적서는 延大가 5승4무4패로 앞서있다.

축구

延高정기전의 하이라이트인 축구경기는 0-0으로 끝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기온이 급강하한데다가 선수들이 긴장하여 정상급의 플레이를 보이지 못했다.

鄭聖教, 張外龍, 邊炳柱, 丁海遠등 花郎선수4명과 청소년대표 2명(康得壽, 金萬吉)을 보유한 延大는 전반서 우세를 보였으며 高大는 4명의 花郎멤버(李康助 黃石根 李泰昊 趙兢衍)와 청대표 金錫垣을 활용, 후반서 강세를 보였다.

90분간의 맹렬한 공방전에서 골이 터지지 않은것은 양팀 모두 수비가 두터웠기때문이다.

高大는 전반4분 왼쪽을 파한 金錫垣의 슛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으나 10분을 고비로 하여 延大가 공격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11분 丁海遠의 예리한 중거리슛이 빗나갔으며 19분에도 득점 찬스를 맞았다. 邊炳柱가 문전 정면 슛, 高大GK 金顯泰가 잡은볼을 놓쳐 흐르자 李春錫이 뛰어들며 강하게 때렸으나 볼은 오른쪽 골 포스트 밖으로 지나갔다. 38분 邊炳柱의 장거리 슛도 불발.

전반서 열세였던 高大는 후반에 접어들면서 페이스를회복, 花郎소속의 黃石根 李康助 李泰昊의 콤비플레이로 延大진영을 파상적으로 뚫으며 우세를보였다. 4분 李泰昊의 장거리슛이 불발되었으며 黃石根(14분) 李吉龍(16분)의 슛도 빗나갔다. 高大의 HB 李泰昊는 이날 종횡무진으로 뛰었다.

◇축구

연세대 0-0 고려대

럭비

박진감넘치는스피드와 오픈플레이가 돋보인 延世大가 완강한 포워드진을 앞세운 高麗大를 14-12로 꺾었다.

高麗大는 전반18분까지 상대반칙으로 얻은 2번의 페널티킥을 文永贊이 모두 성공시켜 6-0, 리드를 잡아 전력이 뒤진다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延世大는 21분께 상대방 5m지점앞에서 혼전중 高大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金承煥이 성공시켜 3점을 얻고 추격의 채비를 차렸다.

高大는 이보다 3분뒤 상대20m지점서 얻은 페널티킥을 文永贊이 또다시 성공시켜 3득점, 6점차로 간격을 벌려놓았다.

延大는 27분께 高大의 오프사이드 반칙으로얻은 페널티킥을 金承煥이 성공시킨데이어 전반종료1분께 상대10m지점서 흘러나온볼을 패스로연결시키다 趙龍德이 트라이에 성공, 10-9로 아슬아슬한 리드를잡고 전반전을끝냈다. 후반들어 延大진영 30m지점서 양팀선수들이 어울려지면서 延大측의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文永贊이 성공시켜 高大가 12-10으로또다시 리드를 잡았다. 高大는 30분께 패기넘친 오픈플레이로 延大진영 30m까지 육박해들어갔으나 오랜만에 보여준 멋진패스플레이가 延大에의해 차단당했다.

高大의 패스된볼을 인터셉트한 延大吳和錫은 40m가량 독주하다가 뒤따르던 趙龍德에게 백패스, 趙는 이를 트라이로 연결시켜 4점을 추가하고 2점차로 延大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로써 延大는 역대전적에서 5승1무7패를기록했다.

◇럭비

연세대 14	10-9	12 고려대	
	4-3		

구독신청 광고문의 533-2361

가정의 벗 한국일보

老將 디블리 單式서 패권
強서브 驅使… 젊은 패튼 물리쳐

해태盃 프로테니스 閉幕

해태배 국제프로테니스대회가 24일 잠실종합체육관에서 폐막, 참가선수중 최하위 랭커(세계1백64위)인 36세의 노장 콜린·디블리(濠洲)가 세계8위의 로스코·테너를 비롯한 강자들을 차례로 꺾고 단식패권을 차지, 1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디블리는 단식결승서 우세한 서브와 다채롭고 노련한 게임운영으로 빈센트·안·패튼(23·美國)을 6-3, 6-4로 제압했다. 복식결승서는 테너, 새드리조가 아마야, 아리아스조에 6-4, 6-4로 승리, 우승했다.

예상을 뒤엎고 결승까지 올라간 디블리는 첫세트서 4차례, 제2세트서 4차례 모두 8번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했으며 매치포인트역시 코트 중앙을 가르는 통렬한 서브에이스로 잡아 노장의 건재를 과시했다. 디블리는 서브권을 가진 첫게임에서 연속 더블폴트로 15-40으로 리드 당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이후 강서브로 착실히 만회, 한 게임을 선취하고 정확한 패싱과 로빙등 다양한 테크닉을구사, 연속3게임을앗섰다. 다소 긴장한탓인지 악살꾼 패튼은 특유의 드라이브 반격이 불발, 첫세트를 6-3으로 잃었다. 패튼은 제2세트 2-1에서 디블리의 범실에 편승, 상대의 서브게임을 0-40으로 리드, 결정적인 역전찬스를 맞았으나 의외로 강하고 침착한 디블리의 서브와 네트플레이에 눌려 역전당하고 승부처를 놓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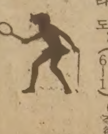
◇최종일 결승전

▲단식

디블리(호주) 2 (6-3, 6-4) 0 패튼(미국)

▲복식

테너·새드리(미국) 2 (6-4, 6-4) 0 아마야·아리아스(미국)



李德姬 準準決탈락 日오픈테니스

【東京23日聯合】日本오픈테니스대회에 참가중인 韓國의 李德姬는 23일 속개된 여자단식 준준결승에서 브라질의 패트리셔·메드라도 선수에게 세트스코어 2-0으로 완패했다.

◇여자단식 3회전(준준결승)

메드라도 2 (6-2, 6-1) 0 李德姬

複式 테너·새드리組우승

신설된 해태배 국제프로테니스대회서 단식우승의 행운을 잡은 36세의 노장 콜린·디블리는『훌륭한시설, 멋진 대회였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본경기에 앞서 가진 한국대표선수들과의 친선복식경기를 토대로『한국선수들은 클레이 코트서만 훈련해 너무 느리다. 보다 강한 볼을 치고 받을수 있는 강도높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평하고 선수들의재질에서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볼수있었다고 말했다.

디블리는 특히 한국선수들의 서브와 스트로크가

"한국選手는 攻擊力 빈약" 디블리 制度的육성책 力說

빈약해 수비적인 게임운영으로 제페이스를 찾지못했고 발리의 자신이 없는것같다고 평했다. 디블리는 호주나 미국등 테니스강국의 예를들어『어린 나이에 일찍 소질있는 선수를 발굴, 대선수로 키우는 제도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디블리는 잠실종합체육관에 마련된 특설코트인 시설은 완벽했다고칭찬하고 관전자들이 게임을 음미할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어 감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관전자들이 야구나 축구에서처럼 경기도중 움직여 경기에 다소 지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디블리는 9년전에 濠洲데이비스컵대표로 서울을 방문, 한국의 金聖培에게 3-0으로 완승, 이번이 두번째 방문이다.

◇老鍊발휘 해태배 국제프로테니스대회 개인단식서 우승한 디블리의 스매싱。

流星의 賦 <217>

李炳注作 李友範畵

秋風何處至 ⑮

계남이 문정봉에게 일렀다.

『최금용에게 한번 권고를 해봐라. 우리들과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서로 궁술도 연마할 겸, 우의를 돈독하게 해보자고 은근히 꼬셔 봐』

배석환에겐 황주에서 온 원도석과 나주에서 온 신석을 꾀어보라고 했다. 최금용에 대해선 서울에라도 데리고 가서 무과(武科)에 등용되도록 이영에게 권할 마음으로서 였지만 원도석과 신연석에 관해선 그들의 태도로써 정여립의 동태를 알아보려는 속셈이었다.

산막에서 하루를 더 묵고 내려오는 길인데 여립이 중도에까지 박연령을 보내 계남을 불러오라고 했다.

『백수로 세상을 헤매면 뭐 하겠소. 기(旗)한 바 있게 약조를 해선 무슨 까닭이 있게 천하 유람을 해야지』

박연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계남과 그 일행을 떠돌이 과객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계남은

『고향에 노부모가 있어 잠시 문안을 드린 다음 다시 오겠노라』

는 핑계를 댔다.

박연령이 되돌아선 후 계남이 문정봉에게 최금용의 일을 물었다.

『그를 꼬시려고 하다가 내가 되려 꼬일뻔 했소이다』

하고 문정봉은 피식 웃었다. 문의 말에 의하면 최금용은 당장 다음날에라도 하늘에서 큰 벼슬이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란 것이다.

배석환도 이런 말을 했다.

『원도석도 여립의 옆에 있으면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말하더군요. 신연석은 여립의 허락없인 요불촌동이라고 했구요』

이로써 홍계남은 정여립의 역모가 확실하다는 심증을 굳혔다. 청수, 청기, 청지라느니 청충, 탁충이라느니 하는 말이 모두 역모에 통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확신할수 있었을뿐더러 갖은 수단을 다해 무술인과 장사를 모으고있는 목적도 역모를 두고도 그목적이 있을 것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그많은 은이나 돈은 어디서 어떻게나온것일까. 정여립이 부자란는 소리는듣지못했는데』

홍계남이 이렇게 의혹을 말하자 문정봉도 자기도 그사실을 미심스럽게 생각하고있다며

『역모의 심증은 잡은 것인즉 그일을 한번 살펴 봅시다』

고 했다.

배석환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주의 숙소로 돌아가자 계남이 소상하게 자기가 들은 바, 본바와 아울러 짐작하는 바를 적어 이튿날 아침 배석환을 한양의 이영에게 보냈다.

전주에 남아있던 이태수의 보고는

『밤낮 없이 종들과 잡배들이 정여립의 집에 드나드는데, 그리고 그들은 집안의 여자들과 내외도없이 담소, 장난도 하기도 하는데 명색이 양반의 집 이라면서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었다.

『옳거니.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양반의 체통쯤은 문제도 안된다는 얘기다. 여립의 성격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양반의 체통을 내세워 주위를 귀찮게 할 놈이다』

하고 계남은 정여립의 역모를 확신한 스스로의 판단이 어긋남이 없다는 자신을 가졌다.

모눈종이위의 生 <236>

趙善作 金光培畵

모눈종이위의 生 ③

임경일씨가 찾아온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뒤였다. 잠시 휴가를 얻어 귀국한 모양이었는데, 목적은 물론 민희를 설득해서 홍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민희가 얌전히 집에 붙어지내고 있지도 않아서, 그는 닷새의 휴가 기간동안 우리집에 와서 살다 시피했는데도 민희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임경일씨의 고모가 다녀간 이후 민희는 홍콩에서 가져왔던 물건들, 임테면 우황청심환이나 속칭<호랑이기름>이라고 불리는 피부연고, 핸드백, 혁대, 지갑, 카메라, 구두, 나는 이름도 잘알수없는 알록달록한 보석 류들을 (남편에게서 도망쳐 오는동그 경황중에도 현금으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물건으로가져오는편이 이익이 많다는계산을 한것이다) 돈과 바꾸느라고 뻔질나게 나돌아다니더니 마침내는 외박을하기도했고, 어느 날엔가는 약간 술기가있는 얼굴로 돌아와서 「언니, 나 홍콩에 간뒤 유준호라는사람우리집에찾아왔었어?」하고 말하는등, 옛날의 남자들과도 만나기 시작하는 눈치였다.

임경일씨는 민희가 그렇게 집에 없는사이 처음 왔었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내일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그를 재울 방이 없었다) 그보다 더 늦게 귀가한 민희가 남편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새벽같이 집을 나갔고, 다음부터 집에 들를때는 모롱이 가게의 동정부터 살피게 한뒤 잠간씩 들렀다가 빠르게 도망치고는 했다. 한번은 임경일씨가 집에서 기다리다 나가다가, 집에 들어오려던 민희가 가게집 아이를 시켜 그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로 달아나는 민희를 아슬아슬하게 먼발치로 보기도했던 모양이었다. 임테면 임경일씨와 민희는 닷새동안 숨바꼭질을 벌였던 셈인데, 허무하게 닷새를 보내 버린 임경일씨는 이만저만 낙담을 한게 아니었다.

『가서 잘 근무하고 있게. 어떻게든 내 민희 마음을 바꾸어서 돌려 보내줄테니까.』 제가 안 가고 그럼 어쩌겠어? 안 그래?』하고, 어머니는 그를 위로해서 보냈을 뿐이었다.

임경일씨의 변명으로는 민희의 출분(出奔)이 자신의 의처증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의처증이란 당치도 않으며, 그런정도는 애정표현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희의 출분은 어디까지나 그녀가 사귀었던 학생때의 남자친구들때문이며, 홍콩에와서도 처녀때나 똑같이 편지연락을 한는등 못잊어했고, 한번은 그중의 하나가 홍콩으로 그의 아파트까지 찾아왔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임경일씨의 변명은 설득력이 대단해서, 어머니나 나나 임경일씨의 말을 듣고있으면 그가 옳은것같고, 민희의 말을듣고 있으면 민희가 옳은것같아서 갈팡질팡일 지경이었다.

그러나 아뭏튼 분명한것은 민희가 임경일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모양으로, 임경일씨의 혼담이 나왔을때도 민희는 임경일씨라는 한 사람의 남성보다 외국생활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더 매혹되었던것같다. 어쨌든 민희는 임경일씨가 돌아가자 언제 그런 남자와 결혼했더냐 싶게, 또 언제 아이를낳은산모였더냐 싶게 판연히 달라져서, 곧 어떤 의약품 메이커의 광고부에 취직을했고, 또 두어달 지나서는 자유롭게 살겠다면서 잠실에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얻어 집에서 나갔다. 임테면 민희는 임경일씨와의 결혼이후 비로소 제 일을 제 뜻으로정해서 사는 어른이 되어 집을 나간 셈인데, 민희가 입을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유준호나, 누군가 남자 친구와 동거를 하기위해 집을 떠난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30~1PM

벡커 프렌차이스 협회 정기총회 공고

현회장단이 단결과 승리를 표어로 걸고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출범한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생각하면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고 힘겨 웠던때도 많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회원 제위께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현회장단은 협회정관을 엄중히 준수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기가 될지도 모르는 앞으로 2년동안의 새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일자를 확정하고 모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하면 따라 간다는 식의 비 적극적인 생각이나),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이나 프렌차이스 휘는 본사의 임의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본사는 우리들의 그 약점을 노리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철석같은 단결을 보여주십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권익과 생존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소 : 900 YORK MILLS RD. (프린스호텔)

때 : 1981년 11월 13일 금요일 오후1시

회 비 : $15 (1인당 식사비)

벡커 프렌차이스 협회장 김 병 진